홍길동전

洪吉童傳 · 경판 30장본

허균 (許筠, 1569–1618) 원작

옛 한글 → 현대 한국어 윤문 · 2026-05-21

vLLM Gemma 4 26B-A4B + Claude Haiku 검수

책 정보

원전

『홍길동전(洪吉童傳)』 경판 30장본 (방각본 고전소설)

원작자

허균 (許筠, 1569–1618) 전(傳). 경판본은 19세기 방각본

원전 출처

ko.wikisource.org · 옛 한글 원문 (퍼블릭 도메인)

현대화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1차 윤문 → Claude Haiku 검수

작업 방식

한문 번역이 아닌 옛 한글 → 현대 한국어 윤문. 아래아·옛 자모·고어 어휘를 현대 정서법으로 옮김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1

윤문 정책

- 아래아(ㆍ)·옛 자모·옛 표기를 현대 정서법으로 정규화
- 고어 어휘를 현대어로 풀어씀 (화설 → 한편, 됴션 → 조선)
- 인명·지명·관직 보존 (홍길동, 세종, 춘섬, 이조판서)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지양,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AI 윤문의 한계상 옛 어휘의 동음이의 오역·어조 흔들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교주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교주본을 권합니다.

홍길동전

조선국 세종 임금 시절에 한 재상이 있었다. 성은 홍이고 이름은 아무개였다. 대대로 이름난 명문가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 명망이 조정과 재야를 통틀어 으뜸이었고, 충성과 효성을 함께 갖추어 그 이름이 온 나라에 떨쳤다. 그는 일찍이 두 아들을 두었다. 한 아들은 이름이 인형으로 정실부인 류씨의 소생이었고, 다른 한 아들은 이름이 길동으로 계집종 춘섬의 소생이었다.[1)2)3)]

이전에 공이 길동을 낳을 무렵 꿈을 하나 꾸었다. 문득 천둥과 벼락이 진동하더니 청룡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공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깨어 보니 한바탕 봄꿈이었다. 공이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내가 이제 용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으리라.' 그러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가 일어나 맞이했다. 공이 기쁜 마음에 부인의 고운 손을 이끌며 정답게 가까이하려 하자, 부인이 정색하며 말했다.[4)5)6)7)]

"상공께서는 신분이 존귀하신 분인데, 나이 어리고 경박한 자나 할 비루한 짓을 하려 하시니, 저는 그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8)9)10)]

그렇게 말하고는 손을 뿌리치고 나가 버리니, 공은 몹시 무안하여 치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외당으로 나와 부인이 사리를 알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시비 춘섬이 차를 올리기에, 그 고요한 틈을 타 춘섬을 이끌고 곁방으로 들어가 정을 통하였다. 이때 춘섬의 나이는 열여덟이었다. 한 번 몸을 허락한 뒤로는 문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할 뜻이 없으니, 공이 기특하게 여겨 그대로 첩으로 삼았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 만에 옥같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기골이 비범하여 참으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공은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부인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님을 한스러워하였다.[11)12)13)]

길동이 점점 자라 여덟 살이 되자 총명함이 남달라서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아차렸다. 공은 그를 더욱 사랑하고 아꼈으나, 근본이 천한 종의 몸에서 난 자식이었다. 길동이 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려 하면 공은 문득 꾸짖어 그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부르지 못하고, 종들마저 자신을 천대하는 것이 뼈에 사무치게 한스러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음력 구월 보름께를 맞으니, 밝은 달은 환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히 불어와 사람의 심회를 돋우었다.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며 말했다.[14)15)16)17)18)]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군의 인수를 허리에 비껴 차고 동쪽을 치고 서쪽을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사내대장부의 통쾌한 일이다. 나는 어찌하여 이 한 몸이 이토록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계시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구나. 어찌 통한스럽지 않겠는가."[19][20][21][22]

그리고 말을 마치고 뜰로 내려가 검술을 익히고 있었다. 마침 공도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거니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불러 물었다.[23][24]

"너는 무슨 흥이 있어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이 공손히 대답했다.

"제가 마침 달빛을 사랑하던 차이옵니다만, 무릇 하늘이 만물을 내실 때 오직 사람이 귀하다 하오나, 저에게 이르러서는 그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25][26]

공은 그 말의 속뜻을 짐작했지만, 짐짓 모르는 척 꾸짖으며 말했다.[27][28]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길동이 두 번 절하고 아뢰었다.[29]

"소인이 평생 서러운 바는,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낳아 주고 길러 주신 은혜가 깊은데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30][31]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려 홑적삼을 적셨다. 공이 그 말을 다 듣고 비록 측은하였으나, 만일 그 마음을 위로해 주면 도리어 마음이 방자해질까 두려워 크게 꾸짖었다.[32][33][34][35]

"재상 집안에서 천한 계집종의 몸에 태어난 자식이 어디 너 하나뿐이겠느냐. 그런데도 네가 어찌 이토록 방자하게 구느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면 내 눈앞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36][37]

그렇게 하니, 길동이 감히 한 마디도 아뢰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명하니, 길동이 침소로 돌아와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38][39][40]

길동은 본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했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루는 길동이 어머니의 침소에 가서 울며 아뢰었다.[41][42]

"소자가 어머니와 전생의 연분이 깊어 이승에서 모자의 인연을 맺었으니 그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구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가슴에 품은 한이 깊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천대를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자가 절로 끓어오르는 기운을 억누르지 못하여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하신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43][44][45]

그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46][47]

“재상가에 천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거늘, 어찌 옹졸한 마음을 드러내어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48][49][50]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산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열세 살에 어머니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도를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안심하시고 뒷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요사이 곡산댁의 행색을 보니, 상공의 총애를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여깁니다. 큰 화를 입을까 두려우니, 어머니께서는 소자가 떠나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51][52][53][54]

그러자 그 어머니 또한 슬퍼했다.

원래 곡산댁은 본디 곡산 기생으로 상공의 사랑받는 첩이 되었으니, 이름은 초난이었다. 몹시 교만하고 방자하여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공께 남을 헐뜯어 일러바치니, 이 때문에 집안에 폐단이 끝이 없었다. 그런데 초난은 아들이 없고 춘섬은 길동을 낳아 상공이 늘 길동을 귀하게 여기므로, 초난은 이를 마음속으로 원망하여 길동을 없애려고 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흉계를 생각해 내고 무녀를 불러 말했다.[55][56][57][58]

"내 한 몸이 평안해지는 것은 곧 길동을 없애는 데 달려 있다. 만일 내 소원을 이뤄준다면 그 은혜를 후하게 갚겠다."[59][60][61]

하니, 무녀가 듣고 기뻐하며 대답했다.[62][63]

"지금 흥인문 밖에 으뜸가는 관상녀가 있는데, 사람의 상을 한 번 보면 앞뒤의 길흉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을 청하여 우리의 소원을 자세히 일러 주고, 상공께 천거하여 전후 사정을 직접 본 듯이 고하게 하면, 상공께서 반드시 크게 미혹되시어 그 아이를 없애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틈타 이러이러하게 하면 어찌 묘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64][65][66][67]

초란이 크게 기뻐하며 먼저 은자 오십 냥을 주면서 "관상 보는 사람을 청해 오라" 하니, 무녀가 하직하고 갔다.[68][69][70]

이튿날 공이 내당에 들어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이 비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만 그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한창 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당 아래에서 문안을 올리니, 공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71][72][73]

"그대는 어떤 여자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소인은 관상 보는 일을 업으로 삼아 왔는데, 마침 상공의 문하에 이르렀습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길동의 앞일을 알고 싶어 즉시 길동을 불러 관상가에게 보이니, 관상가가 한참 바라보다가 놀라며 말했다.[74][75][76]

"이 공자의 관상을 보니 천고에 다시없을 영웅이요 한 시대의 호걸입니다. 다만 신분이 부족할 뿐, 그 밖에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77][78][79]

그러고는 말을 꺼내려다 머뭇거리니, 공과 부인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80]

"무슨 말이냐, 바른대로 말하라."

상서는 마지못해 좌우를 물리치고 말했다.[81]

"공자의 관상을 보니, 가슴속에 품은 조화가 끝이 없고 미간에는 산천의 정기가 영롱하게 어려 있으니, 참으로 왕후가 될 기상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장차 가문이 멸망하는 화를 당하실 것이니, 상공께서는 부디 살펴 주십시오."[82][83]

공이 이 말을 다 듣고 놀라며,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마음을 정하고 말했다.[84][85][86][87]

"사람의 팔자는 도망치기 어려운 법이니, 너는 이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약간의 은자를 주어 보냈다. 그 후로 공은 길동을 산속 정자에 머물게 하고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엄격히 살폈다. 길동은 이런 처지를 당하니 더욱 서러움을 이기지 못했으나 달리 어쩔 길이 없어 육도삼략과 천문지리를 공부했다.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하며 말했다.[88][89][90]

“이놈이 본디 재주가 있으니, 만일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으면 관상 보는 여자의 말과 같이 될 것이다.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91][92]

이때 초란이 무녀와 관상가와 결탁해 공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길동을 없애려고 천금을 들여 자객을 구하니 그 이름은 특재였다.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일러 주고, 초란이 공께 아뢰었다.[93][94][95]

“지난번 관상녀가 알아맞히는 것이 귀신같이 신통하니, 길동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천첩도 놀랍고 두려우니, 차라리 일찍 그를 없애 버리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합니다.”[96][97][98]

공이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 일은 내 손안에 있으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마라."[99]

그렇게 물리치기는 했지만, 마음이 절로 어지러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다.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초난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아뢰었다.[100]

"상공의 환후가 위중하신 것은 길동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한 소견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애면 상공의 병환도 쾌차하실 뿐 아니라 가문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이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101][102][103]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더없이 무거우니, 차마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104]

"듣자 하니 특재라는 자객이 있어 사람 죽이기를 주머니 속 물건 꺼내듯 쉽게 한다고 합니다. 천금을 주어 밤에 들여보내 해치우게 하면,

상공께서 아신들 어찌할 길이 없을 것이니, 부인께서는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105][106]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차마 못 할 일이지만,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며, 셋째는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네 계교대로 행하여라."[107][108][109]

초란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특재를 불러 이 말을 자세히 일러 주고, 오늘 밤에 급히 일을 행하라고 하니, 특재가 이를 응낙하고 밤이 들기를 기다렸다.[110][111]

한편, 길동은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니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상공의 엄한 명령이 지극히 무거워 어찌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날 밤에는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골똘히 읽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가 세 번 울고 지나갔다. 길동이 괴이하게 여겨 혼잣말로 말했다.[112][113][114]

"이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는 것인데, 이제 울고 가니 몹시 불길하구나."[115]

그리고 잠깐 팔괘를 벌여 점을 쳐 보고는 크게 놀라 서안을 물리고, 둔갑법을 부려 그 움직임을 살폈다.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진언을 외우니, 홀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중의 거룩한 풍경이 펼쳐졌다. 특재가 크게 놀라 길동의 조화가 신기함을 알

고 비수를 감추고 달아나려 했으나,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암절벽이 가로막으니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사방으로 헤매고 있는데 문득 피리 소리가 들리거늘,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는 꾸짖어 말했다.[116][117][118][119][120]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겠느냐."[121][122]

그리고 주문을 외니, 갑자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비가 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돌이 날렸다. 특재가 정신을 수습하여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기기는 하나, 어찌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고 달려들며 크게 소리쳐 말했다.[123][124][125]

"너는 죽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초난이가 무녀와 관상쟁이를 시켜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겠느냐."[126][127]

그러고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길동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요술을 부려 특재의 칼을 빼앗아 들고 큰소리로 꾸짖었다.[128]

"네가 재물을 탐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좋게 여기니, 너 같은 무도한 놈을 죽여 후환을 없애겠다."

그러고는 칼을 한 번 휘두르니 특재의 머리가 방 안으로 떨어졌다. 길동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날 밤 곧바로 상녀를 잡아다 특재가 죽은 방에 던져 넣고 꾸짖어 말했다.

"네가 나와 무슨 원수가 졌기에 초난과 한패가 되어 나를 죽이려 했느냐."[129][130]

그러고는 베어 버리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는가.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의 형상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시름을 더하고 있었다. 분한 기운을 참지 못해 초란마저 죽이려 하다가, 상공이 그를 아끼시는 마음을 깨닫고는 칼을 던지며 멀리 달아나 살길을 도모할 것을 생각하고, 곧바로 상공의 침소로 나아가 하직을 아뢰려 했다. 이때 공이 창밖에 인기척이 있음을 괴이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바로 길동이었다. 공이 그를 불러들여 말했다.[131][132][133][134][135]

"밤이 깊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서성이느냐?"

길동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이 일찍이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을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려 하므로, 겨우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어 오늘 상공께 하직을 고합니다."[136][137]

그러자 공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너는 무슨 변고가 있기에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느냐?"[138]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되겠지만,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으니, 상공께서 버리신 자식이 어찌 참소를 두려워하겠습니까."[139][140]

하며 두 줄기 눈물이 마구 흘러내려 말을 잇지 못하자, 공이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타이르며 말했다.[141][142][143]

"내가 네가 품은 한을 짐작하니, 오늘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노라."[144]

길동이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소자의 한 조각 맺힌 한을 아버지께서 풀어 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소서."[145][146][147]

이렇게 말하고 두 번 절하여 작별 인사를 올리니, 공은 차마 붙들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만을 당부했다.[148][149][150]

길동이 또 어머니의 침소에 가서 작별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소자가 지금 슬하를 떠나오니, 다시 모실 날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귀하신 몸을 잘 보중하소서."[151][152]

춘낭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변괴가 있음을 짐작했으나, 아들이 하직하는 것을 보고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말했다.[153]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한집에 살면서도 거처가 멀어 늘 너를 그리워했는데,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니 어찌 견디겠느냐. 너는 부디 빨리 돌아와 우리 모자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154)155)156)]

길동이 두 번 절하고 작별을 고한 뒤 문을 나서니, 구름 낀 산이 첩첩이 겹쳐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그 모습이 어찌 가련하지 않겠는가.[157)158)]

한편, 초란은 특재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음을 몹시 의아하게 여겨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길동은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특재의 주검과 계집의 시신만 방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초란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부인에게 알렸다. 부인 또한 크게 놀라 좌랑을 불러 이 일을 말하고 상공께 고하니, 상공이 크게 놀라 낯빛이 변하며 말했다.[159)160)161)]

"길동이 밤에 찾아와 슬피 작별을 고하기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162)]

좌랑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초난의 실상을 고하자, 공은 더욱 분노하여 한편으로는 초난을 내쫓고, 가만히 그 시체를 없앤 뒤 노복들을 불러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163)164)165)]

한편, 길동은 부모와 이별하고 집을 나선 뒤 홀로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러다 한 곳에 다다르니 경치가 빼어났다. 인가를 찾아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석문이 닫혀 있었다.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넓은 들판에 수백 채의 집이 즐비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

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다. 이곳은 바로 도적의 소굴이었다. 그들은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사람됨이 만만치 않음을 반기며 물었다.[166][167][168]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이 모였으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가 만일 용력이 있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한다면 저 돌을 들어 보라."[169][170][171][172]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다행스러워하며 큰절을 올리고 말했다.[173]

"나는 한양 홍 판서의 천한 첩이 낳은 아들 길동이오. 집안에서 천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세상 팔방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는데, 모든 호걸이 나를 동료로 삼아 주시겠다 하니 그 은혜에 감사하기 그지없소. 하지만 대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하나 드는 것을 근심하겠소."[174][175][176]

그러고는 그 돌을 들어 수십 보를 걸어가다가 던지니, 그 돌의 무게가 천 근이었다. 도적들이 일제히 칭찬하며 말했다.[177]

"과연 장사로구나.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을 들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하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장군을 내려주시는구나."[178][179]

그리고 길동을 윗자리에 앉히고 술을 차례로 돌린 뒤, 백마를 잡아 맹세하며 굳게 언약을 맺으니, 무리가 일제히 응낙하고 온종일 즐겼다.[180][181]

그 후로 길동이 여러 사람과 함께 무예를 익히니, 몇 달 만에 군법이 잘 갖추어졌다. 하루는 여러 사람이 말했다.[182][183]

“우리가 벌써 합천 해인사를 쳐서 그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지략이 부족하여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184][185]

"내가 장차 군사를 일으킬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 자기 지위대로 하라."[186][187]

그러고는 푸른 도포에 검은 띠를 두르고 나귀에 올라 종자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며 말했다.[188]

"내가 그 절에 가서 동정을 살피고 오겠다."[189]

그렇게 떠나갔는데, 그 풍채와 거동이 영락없는 재상가의 자제였다.[190]

그 절에 들어가 먼저 스승을 불러 말했다.

“나는 서울 홍 판서 댁 자제다. 이 절에 글공부를 하러 왔는데, 내일 백미 스무 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정성껏 차려 놓으면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191][192][193]

그러고는 절의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보며 훗날을 기약하고 동구를 나서니, 모든 승려가 기뻐했다. 길동이 돌아와 백미 스무 석을 보내고, 여러 사람을 불러 말했다.[194][195]

"내가 어느 날 그 절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뒤를 따라와 이러이러하게 하라."[196][197]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 종자 수십 명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니, 여러 승려가 맞이하여 들어갔다. 길동이 노승을 불러 물었다.[198][199][200]

"내가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더냐?"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나 황감할 따름입니다."[201]

길동이 상좌에 앉고 모든 승려를 일제히 청하여 각자 상을 받게 한 뒤, 먼저 술을 마시고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송하고 감격해했다. 길동이 상을 받아 먹다가, 문득 모래를 가만히 입에 넣고 깨무니 그 소리가 컸다. 모든 승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사죄하자, 길동이 거짓으로 크게 노한 척하며 꾸짖어 말했다.[202][203][204]

"너희들이 어찌 음식을 이토록 부정하게 만들었느냐. 이는 반드시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분부하여 여러 중들을 모두 한 줄로 결박해 앉히니, 절 안 사람들이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윽고 큰 도적 무리 수백여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제 것 가져가듯 쓸어 가니, 여러 중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저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이었다.[205][206][207][208]

이때 절에서 불 때고 밥 짓는 일꾼이 마침 밖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보고 즉시 관가에 알렸다. 합천 고을 원님이 이를 듣고 관군을 동원하여 그 도적을 잡으라 하니, 수백 장교가 도적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문득 보니 한 중이 송낙을 쓰고 장삼을 입은 채 산에 올라 외쳐 말하기를,[209][210][211][212][213]

"도적이 북쪽 좁은 길로 가니 어서 가서 잡으십시오."[214]

한편 관군은 도망친 자가 그 절의 중인가 하여 폭풍우처럼 북쪽 작은 길로 뒤쫓아 갔으나, 날이 저문 뒤에도 끝내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 길동은 부하 도적들을 남쪽 큰길로 보내고, 자기 혼자만 중의 옷차림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소굴로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벌써 재물을 찾아 거두어 와 있었다. 다들 한꺼번에 나와 사례하니, 길동이 웃으며 말했다.[215][216][217][218][219]

"사내대장부가 이만한 재주도 없다면 어찌 뭇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겠는가."[220][221][222]

이후로 길동은 자기 호를 '활빈당'이라 하고 조선 팔도를 두루 다녔다. 각 고을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이 있으면 빼앗고, 혹 지극히 가난하여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 주었다. 백성은 침범하지 않았고, 나라에 속한 재물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으니, 이런 까닭에 여러 도적이 그 의로운 뜻에 감복하였다.[223][224][225]

어느 날 길동이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의논하며 말했다.

"이제 함경 감사가 탐관오리로서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니, 백성들이 다 견디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그저 두고 볼 수 없으니, 그대들은 나의 지휘대로 하라."[226][227]

그리고 부하 하나를 몰래 흘려 들여보내 아무 날 밤으로 약속을 정하고, 그날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감사가 크게 놀라 "저 불을 꺼라!" 하고 명령하니, 관속과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나가 그 불을 끄려 했다.

그 틈에 길동의 부하 수백 명이 일시에 성안으로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돈과 곡식과 무기를 거두어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안이 요란하여 물이 끓듯 들끓었다. 감사는 뜻밖의 변을 당해 어찌할 줄 모르다가, 날이 밝은 뒤 살펴보니 창고의 무기와 돈과 곡식이 텅 비어 있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며 그 도적을 잡으려 애쓰는데, 갑자기 북문에 방이 하나 붙어 있었다.[228)229)230)231)]

"아무 날에 돈과 곡식을 훔쳐 간 자는 활빈당 우두머리 홍길동이다."[232)233)234)235)]

그러자 감사는 뛰어난 군사를 뽑아 그 도적을 잡으려 했다.[236)]

한편, 길동이 도적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곡식을 훔쳤으나, 행여 길에서 잡힐까 염려하여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처소로 돌아오니 날이 새려 하고 있었다. 하루는 길동이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의논하며 말했다.[237)]

“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에 가서 재물을 빼앗고, 또 함경 감영에 가서 돈과 곡식을 훔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이다. 게다가 내가 내 이름을 써서 감영에 붙여 두었으니, 머지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재주를 지켜보아라.”[238)239)240)241)]

그러고는 즉시 짚으로 초인 일곱을 만들어 진언을 외우고 혼백을 불어넣으니, 일곱 길동이 일시에 팔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한곳에 모두 모여 어지러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알 수 없었다. 길동들이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수백여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중에도 진짜 길동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여덟 길동이 팔도를 다니며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불러오는 술법을 행하니, 각 고을 창고의 곡식이 하룻밤 사이에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봉물을 거침없이 빼앗았다. 그리하여 팔도 각 고을이 소란스러워져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에는 행인이 끊어졌다. 이러므로 팔도가 요란하였다. 감사가 이 일을 장계로 올렸는데, 대강 이러하였다.[242)243)244)245)246)247)]

"난데없이 홍길동이라는 큰 도적이 나타나, 능히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며 각 고을의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봉하여 올려 보내는 진상 물품이 서울로 올라오지 못할 만큼 행패가 끝이 없으니, 그 도적을 잡지 못하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좌포청과 우포청에 명하여 그를 잡게 하소서."[248)249)250)251)]

그렇게 하였다. 임금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시어 포도대장을 불러들이라 명하시니, 연이어 팔도에서 장계가 올라왔다. 차례로 열어 보시니 도적의 이름이 모두 홍길동이라 적혀 있었고, 돈과 곡식을 도둑맞은 날짜를 보시니 하나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다. 임금께서 크게 놀라 말씀하셨다.[252)253)254)]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의 치우라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신기한 놈이라 한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 있으면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도적질을 하겠느냐.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니, 좌우 포장은 군사를 내어 그 도적을 잡으라."[255)256)257)]

그렇게 하셨다. 이때 우포장 이흡이 임금께 아뢰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 도적을 잡아 오겠으니, 전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좌우 포장이 어찌 함께 출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258][259]

임금이 옳게 여기시어 급히 떠나기를 재촉하시니, 이흡이 하직하고 수많은 관졸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모두 각각 흩어져 아무 날에 문경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이흡은 포졸 두세 명만 데리고 변복한 채 다녔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쉬고 있는데, 문득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 인사하기에 포장이 답례하니, 그 소년이 갑자기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260][261][262]

"온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온 땅의 백성 가운데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다고 하니, 소생이 비록 시골에 살고 있으나 나라를 위하는 근심만은 간절합니다."[263][264]

포장이 짐짓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265]

"이것이 어찌 된 말씀입니까?"

"이제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니 민심이 동요합니다. 이놈을 잡지 못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대는 체격이 장대하고 말이 충직하니,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진작 잡고자 했으나 용력 있는 사람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다만 그대의 재주를 아직 모르니, 으슥한 곳에 가서 시험해 보세."[266][267][268]

그렇게 함께 길을 가다가, 한곳에 이르러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으며 말했다.

"그대는 힘을 다해 두 발로 나를 차라."

그러고는 벼랑 끝으로 나아가 앉으니, 포장이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아무리 용력이 있다 한들 한 번 차면 어찌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온 힘을 다해 두 발로 세게 차니, 그 소년이 문득 돌아앉으며 말했다,[269][270][271]

"그대는 참으로 장사로구나. 내가 여러 사람을 시험해 보았으나 나를 흔드는 자가 없었는데, 그대에게 채이고 보니 오장이 울리는 듯하구나.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길동을 잡을 수 있으리라."[272][273]

그러고는 첩첩이 둘러싼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포장이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힘이라면 자부할 만하다 여겼는데, 오늘 저 소년의 힘을 보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설마 저 소년 하나만 있어도 길동 잡는 일을 걱정할 것 있겠는가.' 그러고는 뒤따라갔다. 그때 그 소년이 문득 몸을 돌려 서며 말했다.[274][275]

"이곳이 길동의 소굴이다. 내가 먼저 들어가 살펴볼 테니,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포장은 마음에 의심이 들었으나 빨리 잡아오라고 당부하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홀연 산골짜기에서 수십 명의 군졸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는 것이었다. 포장이 크게 놀라 피하려 했으나, 군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포장을 결박하며 꾸짖었다.[276)277)278)279)]

"네가 포도대장 이흡이냐? 우리는 지부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280)]

그러고는 쇠줄로 목을 옭아매 비바람같이 몰아가니, 포장은 혼비백산하여 어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다. 한 곳에 다다르자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포장을 꿇어앉혔다. 포장이 정신을 가다듬고 위를 올려다보니, 궁궐이 드넓은 가운데 무수한 황건역사가 좌우에 늘어서 있었고, 전상에는 한 군왕이 좌탑에 앉아 큰 소리로 말했다.[281)282)283)284)]

"네 따위 보잘것없는 필부가 어찌 홍장군을 잡으려 하느냐? 그러니 너를 잡아 풍도성으로 끌고 가겠다."[285)]

포장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소인은 인간 세상의 미천한 사람입니다. 죄 없이 잡혀 왔으니 살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286)287)288)]

이렇게 애걸하자, 임금이 앉은 자리 위에서 웃음소리가 나며 꾸짖어 말했다.[289)]

"이 사람아, 나를 자세히 보아라. 나는 바로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다. 그대가 나를 잡으려 하기에 그 용맹과 뜻을 알고자, 어제 푸른 도포

를 입은 소년을 시켜 그대를 이끌어 이곳에 오게 하고 나의 위엄을 보이려 한 것이다."[290][291][292]

말을 마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묶은 것을 풀고 마루에 앉힌 뒤, 술을 내와 건네며 말했다.[293][294]

"그대는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 나를 보았다고 말하면 반드시 죄를 추궁당할 테니, 부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오."[295][296]

그리고 다시 술을 부어 권하며 좌우에게 명하여 내보내라 하니, 포도대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생시인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으며…' 하면서 길동의 조화를 신기하게 여겨 일어나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지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괴이하게 여겨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가죽 부대 속에 들어 있었다. 간신히 빠져나와 보니 부대 셋이 나무에 걸려 있기에 차례로 끌러 내어 보니, 처음 떠날 때 데리고 왔던 하인들이었다. 서로 말하기를,[297][298][299][300]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떠날 때 문경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는가?"

그리고 두루 살펴보니 다른 곳이 아니라 장안성 북악이었다. 사인이 어이없어 장안을 굽어보며 하인에게 일러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소인들은 주점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구름에 싸여 이리로 오게 되었으니 무슨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301][302]

"이 일이 매우 허무맹랑하니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나 길동의 재주가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냥 들어가면 결국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자."[303][304][305]

이때 임금이 팔도에 공문을 내려 길동을 잡아들이라 하셨으나, 그 변신술이 종잡을 수 없었다. 길동은 장안 큰길로 어떤 때는 초헌을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각 고을에 노문을 놓고 쌍교를 타고 다니며, 또 어떤 때는 어사 행세를 하여 각 고을 수령 가운데 탐관오리 노릇 하는 자를 문득 먼저 처형하고 나중에 보고하되 '가짜 어사 홍길동의 보고서다'라고 하니, 임금이 더욱 진노하여 말하였다.[306][307][308]

"이놈이 각 도를 돌아다니며 이런 소란을 부리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309][310]

이렇게 하시고 삼공과 육경을 모아 의논하시는데, 잇따라 장계가 올라오니 모두 팔도에서 홍길동이 난을 일으킨다는 보고였다. 임금께서 차례로 보시고 크게 근심하시며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셨다.[311][312][313]

"이놈은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조화이니, 조정 신하들 가운데 누가 그 근본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314][315]

한 사람이 반열에서 나와 아뢰었다.[316][317]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 아무개의 서자이며, 병조좌랑 홍인형의 서제입니다. 이제 그 부자(父子)를 잡아들여 친히 문초하시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318][319][320]

"이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즉시 홍모를 의금부에 가두고, 먼저 인형을 잡아들여 임금이 친히 국문을 하시는데, 천위가 진노하여 서안을 치며 말씀하셨다.[321][322][323]

“길동이라는 도적이 너의 서제(庶弟)라고 하니, 어찌 막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되게 하느냐. 네가 만일 그를 잡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부자(父子)의 충효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어서 빨리 잡아들여 조선에 큰 변고가 없게 하라.”[324][325][326]

인형이 황공하여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327][328]

“신에게 천한 아우가 있어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망명하여 도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그 종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늙은 아비가 이 일로 인하여 병이 위중해져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는 중에, 길동이 무도하고 음흉하여 성상께 근심을 끼치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과 바다 같은 은택을 베푸시어 신의 아비 죄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병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길동을 잡아 신의 부자(父子)의 죄를 갚을까 합니다.”[329][330][331][332]

임금이 다 듣고 나자 마음이 깊이 감동하여, 즉시 홍 아무개를 사면하고 인형을 경상감사로 제수하며 말했다.[333][334][335][336]

"그대가 만일 감사의 권위와 기구가 없으면 길동을 잡지 못할 것이오. 일 년 기한을 정해 줄 테니 어서 잡아들이도록 하라."[337][338]

하시니, 인형이 백 번 절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곧이어 하직하고는 그날로 길을 떠나 감영에 부임했다. 각 고을에 방을 붙였는데, 이는 길동을 달래는 방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339][340]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매 오륜이 으뜸이고, 오륜이 있어야 인의예지가 분명해진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임금과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여 불충불효를 저지른다면 어찌 세상이 용납하겠느냐. 우리 아우 길동은 이런 도리를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순순히 사로잡혀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병이 골수에 사무치셨고 임금께서도 크게 근심하시니, 네 죄악이 가득 찼다. 이런 까닭에 임금께서 나를 특별히 도백으로 제수하시어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다. 만일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 홍씨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쌓아 온 청렴한 덕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터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바라건대 아우 길동아, 이 일을 잘 생각하여 일찍 자수한다면 네 죄도 가벼워질 것이고 온 집안도 보존될 것이다. 모르겠구나, 너는 부디 만 번을 거듭 생각하여 자수하여라."[341][342][343]

감사가 이 방문(榜文)을 각 고을에 붙이고 다른 공무는 모두 제쳐둔 채 길동이 스스로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린 채 원문 밖에 와서 뵙기를 청했다. 감

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당상(堂上)에 올라 절을 올렸다.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늘 기다리던 길동이었다. 감사는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며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길동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344][345][346][347][348][349]

"길동아, 네가 한 번 집을 떠난 뒤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아버지께서 병이 깊이 드셨다. 그런데도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되니, 대체 무슨 마음으로 불충과 불효를 저지르며, 게다가 도적이 되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죄를 짓느냐? 이런 까닭에 임금께서 크게 노하시어 나에게 너를 잡아들이라 명하셨으니,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어서 도성으로 나아가 하늘의 명을 순순히 받들어라."[350][351][352][353][354]

그렇게 말을 마치며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길동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355]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와 형님의 위태로움을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대저 대감께서 당초에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 일은 말해야 소용없거니와, 이제 소제를 결박하여 경사로 올려 보내소서."[356][357][358]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한편으로는 장계를 써 올렸다. 그리고 길동에게 항쇄와 족쇄를 채워 함거에 싣고,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압령하게 했다. 밤낮으로 길을 재촉해 올려보내니, 각 고을 백성들이 길동의 재주

를 익히 들은 터라 그를 잡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를 가득 메워 구경했다.[359][360][361][362]

이때 팔도에서 모두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장안의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몰라 도무지 영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놀라 만조백관을 모으시고 친히 국문을 하실 때, 여덟 명의 길동을 잡아 올리니, 그들이 서로 다투어 말했다.[363][364][365]

"네가 정녕 길동이냐? 나는 아니다."

서로 싸우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임금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즉시 홍 공을 불러들여 말씀하셨다.[366][367]

"자식을 아는 데는 아비만 한 이가 없다 하니, 저 여덟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368][369]

홍 공이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며 말했다.[370][371]

"신(臣)의 천한 출생인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으니, 이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372][373]

그리고 여덟째 길동을 꾸짖어 말했다.

“네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네 아비가 있거늘, 이토록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까워하지 마라.”[374]

그렇게 말하고는 피를 토하며 엎어져 기절하니, 임금이 크게 놀라 내의원에 명하여 구하게 하셨으나 차도가 없었다. 여덟 길동이 이 광경

을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며 저마다 주머니 속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 입에 넣어 드리니, 홍공이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길동들이 임금께 아뢰었다,[375)376)377)378)]

"제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제가 어찌 감히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본래 천한 여종의 소생이라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평생의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가담했으나, 백성의 것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각 고을 수령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모은 재물만 빼앗았습니다. 이제 십 년이 지나면 떠나갈 곳이 있으니, 엎드려 비옵건대 성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저를 잡으라는 공문을 거두어 주십시오."[379)380)381)382)383)384)]

말을 마치자 여덟 길동이 일시에 쓰러지니, 자세히 보니 모두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였다. 임금은 더욱 놀라며 진짜 길동을 잡으라는 명을 다시 공문으로 작성해 팔도에 내려보냈다.[385)386)387)388)]

한편, 길동이 초인을 없애고 두루 돌아다니더니, 사대문에 방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389)390)391)]

"요사스러운 홍길동은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할 것이니, 병조판서 교지를 내리시면 잡히게 될 것입니다."[392)393)394)]

그러자 임금이 그 방문을 보시고 조정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니, 여러 신하가 말했다.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도 못하였는데, 도리어 그에게 병조판서를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395]

임금께서 그 말을 옳게 여기시고, 다만 경상감사에게 길동을 잡으라고 거듭 재촉하셨다.[396][397]

이때 경상감사는 임금의 엄한 명령을 받고 황송하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을 하고 말했다.[398][399][400]

"이 아우가 지금은 진짜 길동이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저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 주십시오."[401][402][403]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404][405]

"이 분별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한 핏줄의 형제이거늘 부모와 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동하게 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제 정작 몸소 찾아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스스로 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구나."[406][407][408]

그러고는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살펴보니 과연 붉은 점이 있었다. 즉시 사지를 결박해 함거에 넣고,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가려 뽑아 철통같이 에워싸고 비바람처럼 몰아갔으나, 길동의 얼굴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409][410][411]

여러 날 만에 경성에 다다라 궁궐 문에 이르자, 길동이 한 번 몸을 흔드니 쇠사슬이 끊어지고 함거가 부서지며, 공중으로 솟아올라 가뿐히

구름과 안개 속에 묻혀 사라졌다. 장교와 군사들은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며 그저 넋을 잃을 뿐이었다. 어찌할 수 없어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들으시고 말했다.[412][413][414]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크게 근심하시니, 여러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뢰었다.[415]

“길동의 소원이 병조판서를 한 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겠다는 것이라 하니, 한 번 그의 소원을 풀어 주면 스스로 사은하러 올 것입니다. 이때를 타서 잡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416]

임금이 그 청을 옳게 여기시어 즉시 홍길동을 병조판서로 제수하시고,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417][418]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를 갖추고 서대를 띠고 높은 초헌을 타고 큰길 위로 당당히 들어오며 말했다.[419][420][421]

"이제 홍 판서가 사은하러 온다."[422]

그리하여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마중 나와 호위하며 궁궐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관리가 의논하기를,[423][424]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부수를 매복시켰다가 나오거든 한꺼번에 쳐 죽여라."[425][426][427]

그리고 약속을 정하였다. 길동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 임금께 숙배하고 아뢰었다.[428][429]

"소신의 죄악이 지극히 무거운데도 도리어 천은을 입어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오니, 이제 전하와 영원히 이별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만수무강하소서."[430][431]

그러고는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싸여 가니, 그 가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임금이 이를 보고 도리어 감탄하며 말했다.[432][433]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예나 지금이나 보기 드문 것이로다. 제 입으로 지금 조선을 떠나겠다고 하였으니, 다시는 폐를 끼칠 일이 없을 것이오. 비록 수상한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대장부의 마음이니 족히 염려할 것이 없으리라."[434][435][436]

그렇게 하시고, 팔도에 사문을 내려 길동을 잡으라는 공문을 거두셨다.[437][438]

한편, 길동이 자기 처소로 돌아와 여러 도적들에게 분부했다.[439][440]

"내가 다녀올 곳이 있으니, 너희는 어디로도 함부로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441]

그리고 즉시 몸을 솟구쳐 남경으로 향해 가다가 한곳에 다다르니, 이곳이 이른바 율도국이었다. 사방을 살펴보니 산천이 맑고 빼어나며 사람들이 번성하여 가히 몸을 편안히 둘 만한 곳이었다. 남경에 들어가

구경하고, 또 제도라 하는 성안에 들어가 두루 다니며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피며 다녔다. 오봉산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제일가는 강산이었다. 둘레가 칠백 리요, 기름진 들판이 더없이 비옥했다.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내 이미 조선을 하직하였으니, 이곳에 와 우선 은거하다가 큰일을 도모하리라' 하고, 표연히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여러 사람에게 일러 말했다.[442][443][444][445]

"그대는 아무 날에 양천 강변으로 가서 배를 많이 지어 두었다가, 아무 달 아무 날에 경성 한강에 대령하라. 내가 임금께 청하여 정조 일천 석을 얻어 올 것이니, 약속한 날짜를 어기지 말라."[446][447][448]

각설. 홍공은 길동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아 병이 깨끗이 나았고, 임금 또한 별다른 근심 없이 지냈다. 이때 가을 구월 보름께,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거니시는데, 문득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옥피리 소리가 청아하게 울리는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임금께 땅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물으셨다.[449][450][451][452]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려 하느냐?"[453][454]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455][456]

"너는 어찌 이 깊은 밤에 왔느냐?"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토록 모시려 하였으나, 한갓 천한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입니다. 문과에 급제한들 옥당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요, 무과에 급제한들 선천에서 막힐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마음을 정

하지 못하고 팔방으로 떠돌며, 무뢰한 무리를 거느려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을 어지럽힌 것은, 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전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은혜가 망극하여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충성으로 섬김이 마땅하오나, 그러지 못하고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영영 떠나 한없는 길을 가옵니다. 정조 일천 석을 서강으로 대어 주신다면, 전하의 덕택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보전할까 하나이다.[457][458][459][460][461]

임금이 즉시 허락하시고 말씀하셨다.

"지난날에는 네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비록 달빛 아래나마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462][463]

이렇게 하시니, 길동이 그제야 얼굴은 들었으나 눈은 뜨지 않았다. 임금이 말씀하셨다.[464][465]

"너는 어찌하여 눈을 뜨지 않느냐?"

"제가 눈을 뜨면 전하께서 놀라실까 합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과연 길동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여 위로하니, 길동이 은혜에 사례하고 다시 공중으로 솟아올라 갔다. 임금이 그 신기함을 칭찬하고, 날이 밝자 선혜청 당상관에게 명을 내려 "벼 천 섬을 서강 강변으로 실어 나르라"고 하니, 선혜청 당상관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대로 거행했다. 그런데 문득 여러 사람이 큰 배를 강가에 대고 그 벼를 실어 가며 말했다.[466][467][468][469]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 임금의 은혜를 많이 입어 정조 천 석을 얻어 갑니다."[470][471]

그리하여 이런 연유를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웃으며 말했다.[472][473][474]

"길동은 신기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 제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475]

한편, 길동이 곡식 일천 석을 얻고 삼천 명의 도적 무리를 거느려 조선을 하직하고, 큰 바다에 배를 띄워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수십만 채의 집을 지으며 농사에 힘쓰고, 때로는 재주를 익혀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사 훈련을 익혔다. 이곳은 본래 깊숙하고 외진 곳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살림살이가 넉넉하였다.[476][477][478][479]

어느 날 길동이 여러 사람을 불러 말했다.[480]

"내가 망당산에 들어가 화살촉에 바를 약을 얻어 올 테니, 너희들은 그사이 애구를 잘 지키고 있어라."[481][482][483]

그러고는 그날로 길을 떠나 망당산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낙천 땅에 이르니, 그곳에 만석꾼 부자가 있었는데 성명은 백룡이었다. 그는 일찍이 딸 하나를 두었는데, 용모와 재질이 비범하고 시서에 두루 능통할 뿐 아니라 검술 또한 이름났다. 그 부모가 딸을 지극히 사랑하여, 천하의 영웅호걸이 아니면 사위로 삼지 않으려고 두루 사윗감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크게 일고 천지가 아득

해지더니 백룡의 딸이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백룡 부부는 슬퍼하며 천금을 흩어 사방으로 딸을 찾았으나, 끝내 그 종적을 알 길이 없었다. 부부는 밤낮으로 통곡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말했다.[484)][485)][486)]

"누구라도 내 딸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만금의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위로 삼겠다."[487)]

그때 길동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측은히 여겼으나 어찌할 길이 없어 망당산으로 향했다. 약초를 캐며 깊이 들어가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 한창 머뭇거리던 차에, 문득 사람 소리가 나고 등불이 환하게 비쳤다. 마음속으로 다행이라 여기며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이 아니라 괴물들이 무수히 무리를 지어 앉아 서로 조화를 부리고 있었다. 가만히 엿보니 비록 사람의 형상이긴 하나 결국은 짐승의 무리였다. 원래 이 짐승은 울동이라는 짐승으로, 여러 해 동안 산속에 살며 변화가 끝이 없었다. 길동이 생각하기를, '내가 두루 다녀 보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본다. 이제 저것을 잡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겠다' 하고는 몸을 숨겨 활로 쏘니, 그중 으뜸가는 놈이 맞았다. 그것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길동이 뒤쫓아 잡으려다가 생각하기를, '밤이 이미 깊었고 산이 험하니 어찌 잡겠는가' 하고는 큰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감추어 치워 두고 두루 더듬어 약초를 캐는데, 문득 괴물 두세 명이 길동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488)][489)][490)]

"이곳은 아무도 올라다니지 못하는 곳인데, 그대는 무슨 일로 이곳에 이르렀느냐?"

"나는 조선 사람으로 의술을 아는데, 이곳에 선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우연히 그대를 만나게 되니 몹시 다행스럽소."[491][492]

그 사람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길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나는 이 산중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대왕께서 부인을 새로 맞아들이고 어젯밤 잔치를 벌여 즐기시다가, 불행히 하늘이 내린 재앙을 맞아 몹시 위중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선약으로 우리 임금을 살려 주신다면 그 은혜를 후히 갚겠으니, 함께 처소로 돌아가 상처를 살펴봄이 어떠하겠습니까?"[493][494][495][496][497]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놈이 어젯밤에 내 화살에 맞아 다친 놈이로구나.' 그러고는 함께 가며 보니, 길에 피가 흘러 그 집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것이 길동을 문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다시 나와 들어오기를 청했다. 길동이 따라 들어가 보니, 단청을 칠한 누각이 웅장한 가운데 흉악한 요괴가 평상에 누워 신음하다가 길동이 온 것을 보고 몸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다.[498][499][500]

"복이 우연히 무슨 살(煞)을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까 시자(侍者)의 말을 듣고 그대를 청하였소. 이는 하늘이 명의를 보내 복을 살리려는 것이오. 바라건대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마시오."[501][502][503]

길동이 사례하고는 거짓으로 말했다.[504][505]

"이 상처를 보니 별로 중한 상처는 아니니, 먼저 속을 다스리는 약을 쓰고 그 뒤에 바르는 약을 쓰면 사흘이 채 못 되어 완쾌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506][507][508]

그 요괴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509]

길동은 본디 온갖 환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초시가 이 일을 보고 그 중 독한 약을 찾아내어 소뇨에게 주며 말했다.[510]

“이 약을 급히 가져다 쓰도록 해라.”

모든 요괴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온수에 갈아 먹으니, 한 식경쯤 지나 배를 두드리고 눈을 실룩이며 소리를 지르더니, 두어 번 날뛰다가 죽고 말았다. 작은 요괴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길동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 하며 말했다.[511][512][513]

"내가 너 같은 흉악한 도적을 베어 우리 대왕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일시에 달려드니, 길동이 홀로 당해내지 못해 공중으로 솟구치며 풍백을 불러 큰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활을 무수히 쏘아댔다. 모든 요괴가 아무리 천 년을 묵어 조화를 부린다 한들, 어찌 길동의 신기한 술법을 당해내겠는가. 한바탕 싸움으로 모든 요괴를 다 죽이고 다시 소굴로 들어가 요괴를 씨도 없이 죽여 나갔다. 그러던 중 한 돌문 안에 두 젊은 여자가 있어 막 죽으려 하기에, 길동이 보고 계집 요괴라 여겨 마저 죽이려 하니, 그 여자가 울며 애걸하여 말했다.[514][515][516][517]

"저희는 요괴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곳 요괴들에게 붙잡혀 와 빠져나가지 못해 죽으려 하던 차에, 천만다행으로 장군께서 들어오셔서 수많은 요괴를 모두 죽여 없애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요괴로 여기지 마시고, 남은 목숨을 구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518][519]

여인이 울며 수없이 애걸하니, 길동이 그 모습을 보고 전에 이곳으로 올 때 길에서 딸을 잃은 사람의 말을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 행여 그 여인이 아닌가 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자태가 참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색이었다. 이어서 사는 곳을 물으니, 한 사람은 낙천현 백룡의 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조철의 딸이었다. 길동이 내심 신기하게 여겨 즉시 그 여인을 데리고 낙천현으로 가 백룡을 찾아보고 앞뒤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보이니, 백룡 부부는 잃었던 딸을 보고 취한 듯 깬 듯하여 서로 붙들고 울었다. 조철 또한 제 딸을 만나니, 죽었던 자식을 다시 본 것보다 더 기뻐했다. 이날 백룡이 조철과 의논하고 즉시 일가친척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며 홍생을 맞아 사위로 삼으니, 첫째는 백소저요 둘째는 조소저였다. 길동이 나이 스물이 넘도록 부부의 정을 모르고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두 아내를 맞아 양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니, 그 깊고 도타운 정이 비할 데 없었다.[520)521)522)523)524)525)]

이리하여 시간이 오래 지나자 길동은 거처를 생각하고 제도로 갈 때, 두 집의 가산과 모든 친척을 거느리고 제도로 갔다. 모든 사람이 반기며, 따로 부인의 처소를 정하고 세월을 보냈다. 이때는 칠월 보름께였다. 길동이 하루는 마음이 절로 슬퍼지더니, 문득 천문을 살피고 눈물을 흘렸다. 백 소저가 물었다.[526)527)528)529)530)]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나는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불효자입니다. 나는 본래 이곳 사람이 아니라 조선국 홍 정승의 천한 첩에게서 난 자식으로, 남에게 떳떳이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해 평생 한이 맺혔습니다. 사내대장부의 큰 뜻

을 펼칠 길이 없어 부모님을 하직하고 이곳에 와 몸을 의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늘 부모님의 안부를 하늘의 별을 보고 살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늘의 형상을 보니 아버님께서 병환이 위중하시어 오래지 않아 세상을 버리실 듯합니다. 내 몸이 만 리 밖에 있어 미처 당도하지 못하기에, 이 일로 인해 슬퍼합니다."[531][532][533]

백 소저는 그제야 그 내력을 알고 슬픔에 잠겼다. 이튿날 길동은 월봉산에 올라가 좋은 묏자리 한 곳을 얻고, 그날부터 일꾼들을 풀어 산역을 시작했다. 석물과 모든 격식은 나라의 왕릉에 버금가도록 하라 이르고, 부하들 가운데 지모 있는 자를 불러 큰 배 한 척을 준비하되 조선국 서강 강변에 대어 놓고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그러고는 즉시 머리를 깎아 큰스님의 모습으로 작은 배를 타고 조선국을 향해 떠났다.[534][535][536][537][538][539]

한편, 홍 판서는 길동이 멀리 떠난 뒤로 조금의 근심도 없이 지냈는데, 나이 팔순에 이르러 갑자기 병을 얻어 점점 위중해졌다. 부인과 맏아들 인형을 불러 말했다.[540][541]

"내 나이가 여든이다. 죽어도 한이 없으나, 다만 길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니, 부디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고 그 아이의 어미를 잘 대접하여라."[542][543][544]

그리하여 병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세상을 떠나니, 온 집안이 망극하여 초상 치르는 모든 절차를 지극정성으로 다하였다. 그러나 장사 지

낼 묏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참으로 난감해하던 차에, 하루는 하인이 들어와 아뢰었다.[545)546)547)]

"문밖에 어떤 스님이 와서 영위에 조문하고자 합니다."[548)549)550)]

이렇게 하자 모두 이상히 여겨 들어오라 하니, 그 중이 들어와 큰 소리로 통곡하자, 여러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551)552)553)554)]

"상공께서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는 중이 없었는데, 어떤 중이기에 저토록 애통해하시는 걸까."[555)556)557)]

그렇게 지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길동이 여막으로 나아가 상인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다가 말했다.[558)559)]

"형님은 어찌하여 소제를 모르십니까?"

그러자 상인이 그제야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장난치던 서당 동무 길동이었다. 상인은 길동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했다.[560)561)]

“이 무지한 아이야,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느냐.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 적에 늘 너를 생각하시고, 임종 때 남기신 말씀이 간절하셨다. 너를 위하여 차마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하셨으니, 자식 된 도리로 어찌 차마 견디겠느냐.”[562)563)564)]

그러고는 그의 손을 이끌고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께 보인 다음, 즉시 초당으로 춘낭을 불러 보게 했다. 두 사람이 서로 한바탕 통곡하다가, 춘낭이 정신을 차려 길동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565)566)]

"너는 어찌 중이 되어 돌아다니느냐?"

"소자가 처음에 마음을 잘못 먹고 난을 일으키기를 일삼다가, 아버지와 형이 화를 입으실까 염려하여 조선 땅을 떠나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지술을 배워 살아가는 방도로 삼았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짐작하고 왔사오니, 어머니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567)568)569)]

부인과 춘낭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거두며 물었다.

“네가 지술을 배웠으면 천하에 이름을 떨칠 것이니, 너는 아버님을 위하여 장사 지낼 묏자리를 얻어보아라.”[570)571)572)]

"소자가 과연 명당자리를 얻기는 했으나 천 리 밖에 있어서 모셔다 장사 지내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근심입니다."[573)574)]

좌랑 벼슬에 있는 형은 본디 길동의 재주를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황되게 여겼다. 그러나 그 효성이 지극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575)576)577)]

"형제가 이미 좋은 묏자리를 얻었으니, 어찌 먼 길을 근심하겠습니까."[578)579)580)]

"형님 말씀이 그러하시면 내일 영구를 옮기십시오. 제가 벌써 안장할 날까지 택일하여 산역을 이미 시작하였으니, 형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581)582)583)584)]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 춘낭을 데려가겠다고 청하니, 부인과 좌랑이 마지못해 허락했다.

이때 길동이 상구를 모시고 형제의 뒤를 따르며, 제 어머니와 함께 서강 강변에 이르니 길동이 지휘하는 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일시에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하니, 망망대해에 순풍이 일어나 그 빠르기가 화살 같았다. 한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배 수십 척을 띄우고 길동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길동을 보고 반기며 좌우로 호위하여 가니 그 위의가 거룩하였다. 인형이 길동을 보고 의아하여 길동에게 물었다.585) 586) 587) 588) 589)

"이게 대체 무슨 변괴냐?"

길동이 그제야 그동안의 일을 하나하나 아뢰며 말했다.

"소제(小弟)가 비록 빌어먹으며 떠돌아다니지만, 거처할 곳을 두루 살펴보니 기름진 들판이 천 리에 펼쳐져 곳간의 곡식이 무수하고, 두 집 처가의 재산이 넉넉하니, 어찌 이만한 살림살이를 잊겠습니까."590) 591) 592) 593)

그러면서 산 위로 점점 올라가니 봉우리가 빼어나게 솟아 산세가 웅장했다. 한 곳에 다다라 정해 둔 자리를 가리키자, 인형이 자세히 살펴보니 산맥은 매우 아름다웠으나 무덤을 가꾼 모든 격식이 마치 왕릉과 같았다. 크게 놀라 물었다.594) 595) 596)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형님은 조금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시각을 기다려 하관을 한 뒤, 즉시 상복 차림을 고쳐 최복을 입고 새삼 애통해하니, 인형과 춘낭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함께 애통해했다. 장례를 마친 후 다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가니, 백씨와 조씨가 중당으로 나와 맞아 시어머니와 시숙을 모시고 비로소 예를 갖추니, 좌랑과 춘낭이 반가워하며 길동의 신기함에 탄복하고 칭송했다.[597][598][599]

이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자 길동이 그 형에게 말했다.

"이제 아버님 묘소를 이곳에 모셨으니 대대로 장수와 재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은 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형님은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많이 모셨으니, 아우는 아버님 돌아가신 뒤를 모셔 제사를 극진히 받들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훗날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니, 오늘 길을 떠나 어머님께서 기다리시지 않게 하십시오."[600][601][602]

좌랑이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 곧 작별하니, 길동은 벌써 여러 사람에게 분부하여 행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 길을 떠난 지 여러 날 만에 본국에 다다라 어머니를 뵙고 길동의 그간 일을 자세히 아뢰며, 좋은 묏자리를 얻어 장사 지낸 까닭을 고하니, 부인 또한 신기하게 여겼다.[603][604]

한편, 길동은 아버지의 산소를 무덤가에서 모시며 아침저녁으로 제사와 제물을 지극정성으로 올리니, 모든 사람들이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삼년상을 마친 뒤, 다시 여러 영웅을 모

아 무예를 연습하고 농사에도 힘쓰니, 불과 몇 년 사이에 군사와 군량이 모두 넉넉해졌으나 아무도 이를 알아채는 이가 없었다.[605][606][607]

한편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땅이 수천 리에 사방이 막혀 있어 그야말로 금성철벽이요 하늘이 내린 나라였다. 길동은 늘 이곳을 마음에 두고 왕위를 빼앗고자 했는데, 이제 삼년상을 마치고 기운이 활발해져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길동이 여러 사람을 불러 의논하며 말했다.[608][609][610]

"내가 예전에 사방을 떠돌아다닐 때 율도국을 마음에 두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니 운수가 트이는 것을 알겠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 군사를 동원해 다오. 그리하면 율도국을 치는 것쯤은 두려울 것이 없으니, 어찌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겠는가."

그러고는 길동이 스스로 선봉이 되고 마숙을 후군장으로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길일을 가려 군사를 일으키니, 이때는 갑자년 가을 구월이었다. 길동이 대군을 지휘하여 율도국 철봉산 아래에 다다르니, 철봉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마가 이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한편으로는 왕에게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거느려 내달아 싸웠다. 선봉장 길동이 맞아 싸우는데, 현충이 본래 용맹하여 길동이 그를 쉽게 무찌르지 못할 줄 알고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611][612][613][614]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벌써 무기와 말은 많이 얻었으나, 걱정되는 것은 다만 양식이다. 만일 날이 오래도록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면 큰일

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계책을 써서 철봉 태수를 잡고 그 군량을 얻어 도성을 치면 어찌 쉽지 않겠는가."[615][616][617][618]

그리고 장수들을 동서남북으로 보내 매복하게 하고, 후군장 마숙에게 정예병 오천을 거느려 싸움을 돋우게 했다. 태수 김현충이 달려 나와 맞서 싸웠는데, 몇 합도 겨루지 못해 마숙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본진으로 돌아오니 현충이 그 뒤를 쫓아왔다. 길동이 때를 타 공중을 향해 주문을 외우니, 이윽고 오방신장이 대군을 거느리고 일시에 에워쌌다. 동쪽은 청제장군이요, 남쪽은 적제장군이요, 서쪽은 백제장군이요, 북쪽은 흑제장군이었다. 그 한가운데서 길동이 황금 투구를 쓰고 큰 칼을 든 채 짓쳐 들어가니, 반 합도 겨루지 못해 현충이 탄 말을 찔러 거꾸러뜨리고 크게 꾸짖었다.[619][620][621]

"네가 죽기 싫거든 어서 항복하여 천명을 어기지 마라."[622][623]

태수의 아들이 애걸하며 말했다.

"소장이 이미 잡혀 왔으니, 부디 남은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624][625][626]

이때 길동은 태수가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좌우에 명하여 태수를 묶은 결박을 풀어 주고 위로했다. 이어서 철봉성을 지키게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을 치려 할 때, 먼저 격서를 써서 율도왕에게 전했다. 그 격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627][628]

의병장 홍길동은 율도왕에게 글을 전한다. 무릇 임금이란 한 사람만의 임금이 아니라 천하 모든 사람의 임금이다. 그러므로 성탕이 걸왕을

치시고 무왕이 주왕을 치셨으니, 이는 하늘의 이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율도국을 칠 때 먼저 철봉을 항복받고 물밀듯 밀고 들어오니, 지나는 곳마다 투항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제 왕이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거든 일찍 항복하여 살길을 도모하라.[629][630][631]

율도국 왕이 글을 다 읽고 나서 크게 놀라 말했다.[632][633]

"우리 나라는 오로지 철봉만 믿고 지내 왔는데, 이제 그 철봉을 잃었으니 어찌 적의 기세를 당해 내겠는가."[634][635]

그러고는 곧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세자와 왕비도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길동이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을 어루만져 안심시키고, 소와 양을 잡아 여러 장수와 군졸을 배불리 먹이고, 길동이 왕위에 오르니 을축년 정월 이십팔일이었다.[636][637]

여러 장수에게 각각 벼슬을 봉할 때, 마숙을 좌승상으로 삼고 최철을 우승상으로 삼았으며,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모두 각각 벼슬을 높여 주었다. 김길을 수문안찰사로 삼아 율도국의 삼백육십 주를 두루 살피게 하니, 조정의 모든 관리가 일제히 천세를 부르며 하례하였고, 멀고 가까운 곳의 백성들 가운데 그 덕을 기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은 이어 부인 백씨와 조씨를 왕비로 봉하고, 부친을 추존하여 현덕왕으로 삼았으며, 모친 춘낭을 대비로 봉하였다. 또 백룡과 조철을 부원군으로 봉하고 궁궐을 지어 내려 주었다. 부친의 능호를 선릉이라 하고, 능 위에 올라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다. 모부인 유씨를 현덕왕비로 봉하

고, 환관과 시종들을 여러 지방으로 보내 대비와 왕비를 모셔 오게 하였다.[638][639][640][641][642]

왕이 즉위한 지 삼 년이 되니 온 나라가 태평하여 사방에 아무 일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편안하니, 왕의 덕택이 성탕에 비길 만했다. 하루는 왕이 태평연을 베풀고 만조백관을 불러 모아 즐기는데, 모친인 대비를 모시고 지난 일을 생각하며 문득 탄식하여 말했다.[643][644][645]

"소자가 당초에 집에 있을 때, 만일 자객의 손에 죽었던들 어찌 오늘날 이같이 되었겠습니까."[646][647][648]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려 용포를 적시니, 대비와 왕비가 더욱 슬퍼했다. 왕이 조회를 마치고 백용을 가까이 불러 일러 말하기를,[649]

“과인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나 본래 조선 사람으로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으니, 벼슬 없는 평민의 처지에는 분에 넘치는 일이오. 조선 임금께서 과인을 위하여 정조 일천 석을 내려 주셨으니 그 은덕이 강과 바다처럼 깊소. 어찌 그 망극한 성덕을 잊겠소. 이제 경을 시켜 사례하고자 하니, 경은 수고를 아끼지 말고 수천 리 먼 길을 무사히 다녀오기 바라오.”[650][651][652]

그리고 즉시 표문을 짓고, 홍부에 전할 서간을 써서 주고, 정조 일천 석을 큰 배에 실어 관군 수십 명에게 운반하게 하니, 백용이 명을 받들고 조정에서 물러나 그날로 출발하여 조선으로 향했다.[653][654][655][656]

한편, 임금이 길동의 말대로 정조(正租) 일천 석을 주어 보낸 뒤로 십 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율도왕의 표문이라 하며 글을 올리거늘, 임금이 놀라시며 봉한 것을 떼어 보시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657)658)659)660)]

전임 병조판서이자 율도국 왕인 신 홍길동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옵고, 한 통의 표문을 조선국 성상의 탑하에 올리옵니다. 신이 본래 천한 여종의 소생으로 못된 마음이 편협하여 성상의 천심을 산란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한 불충이 없사옵고, 또 신의 아비가 천한 자식 때문에 몸에 병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없거늘, 전하께서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시며 정조 천 석을 하사하시니, 이 망극한 천은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신이 사방을 떠돌다가 자연히 군사를 모으니 정예병이 수천이라, 율도국에 들어가 한 번 북을 쳐 나라를 얻고 외람되이 왕위에 올랐으니 평생 한이 없는지라. 이러므로 늘 성상의 큰 덕을 우러러 사모하여 정조 천 석을 도로 돌려드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외람된 죄를 용서하시고 만수무강하옵소서.[661)662)663)664)]

임금이 표문을 보시고 크게 놀라며 크게 칭찬하시고, 즉시 홍인형을 불러들이셨다. 그리고 율왕의 표문을 보여 주시며 기뻐하며 칭찬하셨다. 이때 홍인형의 벼슬은 참판에 이르러 있었다. 이날 마침 길동의 편지를 보고 놀라던 차에 임금의 하교를 듣고, 홍인형은 즉시 대궐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665)666)667)]

"신의 아우 길동이 다른 나라에 가서 비록 귀한 몸이 되었으나, 이는 실로 성상의 크나큰 은덕이니 달리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

신 신의 아버지 산소를 길동이 율도국 근처에 모셨으니, 이제 전하께서 신을 위해 일 년의 말미를 주신다면 다녀올까 합니다."[668][669][670]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윤허하시고, 이어서 홍인형에게 율도국 위유사를 제수하시며 유서를 내리시니, 참판이 하직 숙배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임금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아뢰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671][672][673][674][675]

"오늘 길동의 편지를 보니 나더러 다녀가라고 일렀더구나. 그러나 기력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제 소분 말미를 얻었다 하니 때가 신통하게 들어맞는구나. 함께 갈 터이니 너는 어서 행장을 차려라."[676][677][678]

한편 참판이 만류하지 못하여 모부인을 모시고 길을 떠나니, 석 달 만에 제도산 아래에 이르렀다. 율왕이 벌써 멀리까지 나와 맞이하는데 공경히 영접하는 행렬이 엄숙하고, 여러 왕비들도 함께 나와 맞으니 그 위의가 거룩하였다. 이어 산소에 올라 성묘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큰 잔치를 벌이며 경하하니, 각 고을 수령들이 모두 저마다 비단을 바치며 천세를 부르고, 온 성안의 백성이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는데, 태부인 유씨가 홀연 병을 얻어 온갖 약이 효험이 없었다.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679][680][681][682][683]

"몸이 만 리 타국에 와서 죽으니 한스럽구나. 네 아버지의 산소를 한 번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으니, 슬프다, 천명을 어찌하겠느냐."[684]

돌아가시니 궁중이 한없이 슬퍼하며 애통해했다. 형제가 장례를 갖추어 선릉에 합장하고 밤낮으로 슬퍼하더니, 여러 달이 지난 후 인형이 왕에게 말하기를,[685)686)687)]

"이 형이 이곳에 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구나. 불행히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슬픔이 그지없음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떠나기가 몹시 서운하나 머물 길이 없구나. 아우는 부디 몸을 잘 돌보아라."[688)689)690)691)]

그러고 나서 그날로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조선에 다다랐다. 대궐에 들어가 임금께 숙배하고 이런 사정을 아뢰니, 임금께서도 그가 어머니 상을 당한 일을 슬피 여기시며, 삼년상이 지난 뒤에 곧바로 조정에 들 것을 당부하셨다.[692)693)694)]

한편 율도국 왕은 형님을 보내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인 대비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왕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예법을 갖추어 좋은 묏자리에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지내니, 그 효성스러운 행실이 어떠한지 가히 알 만했다.[695)696)697)]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삼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라의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거리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노래와 노인들이 부르는 격양가는 옛 요순시대에 견줄 만했다. 왕은 일찍이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현이니 백씨의 소생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창이니 조씨의 소생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열이니 궁인의 소생이며, 두 딸 또한 궁인의 소생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풍채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저마다 기골이 장대하고, 문장과 필법은 한 시대에 보기 드문 빼어난 인물들이었다. 왕이 이를 아름답게 여겨 맏아들을 세자로 봉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각각 군으로 봉했으며, 두 딸은 차례로 부마를 간택하니, 그 거룩함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그 위엄 있는 거동은 비길 데가 없었다.[698][699][700][701][702][703]

왕이 즉위한 지 삼십 년에 나이가 칠순이 되었다. 자신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짐작하고, 적송자처럼 신선의 자취를 좇고자 하던 차였다. 어느 날 왕이 후원의 영락전에 올라 이원의 풍악을 갖추고 비빈과 시녀를 불러 모아 즐기며 산천의 경치를 구경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니 그 노래에 이르기를,[704][705]

세상사를 생각하니 풀끝의 이슬과 같구나. 백 년을 산다 한들 이 또한 뜬구름이라. 귀하고 천함에도 때가 있으니 한번 가면 다시 보기 어렵도다. 천지의 정해진 운수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리라. 슬프다, 소년 시절이 엊그제 같더니 오늘 백발이 될 줄 어찌 알았으랴. 아마도 안기생과 적송자를 좇아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706][707][708]

그러고는 두 왕비와 함께 종일토록 기쁘게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오색구름이 전각을 휘감으며 향기가 진동하더니, 한 백발노인이 청여장을 짚고 속발관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채 누각 위로 올라오며 공손히 말했다.[709][710][711][712]

"그대의 인간 세상 부귀와 영화는 어떠한가? 이제 우리가 서로 한곳에 모일 때를 만났으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떠한가?"[713][714][715]

그리고 짚고 있던 육환장으로 난간을 치니, 홀연 우레와 벼락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문득 왕과 두 왕비가 간데없이 사라졌다. 세 아들과 모든 시녀가 이를 보고 망극하여 한바탕 통곡하다가, 빈 관곽을 갖추어 예법에 따라 새 능을 정하고 안장한 뒤, 능호를 형릉이라 하였다.[716][717][718][719]

세자가 곧바로 왕위에 올라 만조백관을 모아 조회를 열고 천세를 부르게 하며, 각 고을에 사면의 글을 내려 백성을 어루만지고, 십 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라 명하니, 온 백성이 그 덕을 칭송하였다. 왕이 친히 제문을 지어 선왕의 능에 몸소 제사를 올리고, 여러 신하의 벼슬을 차례로 높이니, 조정과 백성이 태평함을 기리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격양가를 불렀다. 이렇게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왕이 또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 또한 총명하여 재주와 덕행이 비할 데가 없었다. 이로써 후세 사람들이 그 재주와 충효를 알게 하려 함이었다.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태평성대를 누렸다.[720][721][722]

주석

옛 한글 원문을 현대어로 옮기며 한자어를 복원하거나 뜻을 바로잡은 곳, 설명이 필요한 어휘를 모았다.

1. '명은 뫼라'의 '뫼'는 한자 某(아무개)로, 작가가 재상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관용 표현이라 '아무개'로 옮김.
2. '물망이 됴야의 읏듬'의 '됴야'는 朝野(조야), 즉 조정과 재야를 함께 가리키므로 '조정과 재야를 통틀어'로 옮김.
3. '시비 츈셤'의 '시비'는 侍婢로 곁에서 시중드는 계집종을 뜻함.
4. '션시'는 先時(이전에)로 옮김. 초벌의 '선비'는 오역.
5. '옥슈'는 玉手(고운 손)로, 손을 이끄는 장면임. 초벌의 '옥수(玉水)를 들이켜'는 오역.
6. '뇌졍벽녁'은 雷霆霹靂(천둥과 벼락), '일쟝츈몽'은 一場春夢(한바탕 봄꿈), '친압'은 親狎(친밀히 가까이함)임.
7. '공'은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8. '체위 죤즁'은 體位尊重으로, 신분·지위가 존귀하다는 뜻이라 '신분이 존귀하시다'로 옮김.
9. '년쇼 경박ᄌᆞ'는 年少輕薄子(나이 어리고 경박한 자)로, 상공 같은 귀인이 아니라 그런 부류나 할 행동이라는 대비를 살림.
10. '봉힝치 아니ᄒᆞ리로쇼이다'의 '봉행(奉行)'은 윗사람의 명을 받들어 행한다는 뜻이라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로 옮김.
11. '무류'는 한자 無聊로, 분하고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라 멋쩍고 무안하다는 뜻이라 그렇게 옮김.

12. '부인의 지식이 업스물'의 '지식'은 知識으로, 대화할 기회가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는 식견을 뜻함.

13. '잉쳡'은 한자 媵妾으로, 정실 외에 두는 첩을 가리킴.

14. '과인'은 過人(남보다 뛰어남)으로, 임금 자칭 寡人이 아님.

15. '팔 셰'는 八歲(여덟 살)로 옮김.

16. '공(公)'은 길동의 아버지인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임금이 아님.

17. '호부호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을 뜻함.

18. '추구월 망간'은 가을 음력 9월 보름께를 뜻하며, 추석이 아님.

19. '공밍'은 孔孟(공자와 맹자)으로, 초벌의 '공명'은 오역임. 대장부가 학문으로 입신하지 못하면 차라리 무예로 공을 세우겠다는 대조 구문임.

20. '대쟝닌을 요하의 빗기 ᄎᆞ고'는 大將印을 腰下(허리)에 비껴 차고의 뜻으로, '요동(遼東)'이 아니라 대장군의 인수를 허리에 찬다는 의미임.

21. '동졍셔벌'은 東征西伐로, 동쪽을 정벌하고 서쪽을 친다는 관용 표현임.

22. '호부호형'은 呼父呼兄으로, 서자인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분적 한을 나타냄.

23. '월식'은 月色(달빛)으로, 초벌의 '월석'은 오역임.

24. '공(公)'은 임금이 아니라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25. '쇼인'은 小人으로, 신분 낮은 이가 윗사람에게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 '저'로 옮김. 초벌의 '선비'는 오역임.

26. '월식'은 月色(달빛)으로, 초벌이 '만물의 이치'로 옮긴 것은 오역임.

27. '칙왈'의 '책'은 한자 責(꾸짖다)으로, 초벌의 '모르는 체하며 말했다'와 달리 '꾸짖어 말했다'의 뜻이라 그렇게 옮김.

28. '공(公)'은 길동의 아버지인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임금이 아님.

29. '지빅'는 한자 再拜로, 두 번 절하는 큰절을 뜻함. '고왈(告曰)'은 윗사람에게 아뢰어 말한다는 뜻.

30. '부싱모휵지은'은 父生母慉之恩(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 은혜)으로, 부모가 낳아 기른 은혜를 뜻함.

31. '졍긔'는 精氣(정기)로, '대감의 정기를 받아'는 대감의 핏줄을 이어 태어났다는 뜻임.

32. '쳥파'는 聽罷(청파)로 '말을 다 들음'을 뜻하며, 인명이나 지명이 아니다.

33. '단삼'은 單衫, 곧 홑겹 적삼(옷)이다. 초벌의 '옷깃'은 부정확하다.

34. '공(公)'은 길동의 아버지인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35. 초벌의 '숨을 몰아쉬며'는 오역이다. 원문 '쑤지져'는 '꾸짖어'로, 길동의 마음이 방자해질까 염려해 일부러 엄히 꾸짖은 것이다.

36. '비단'은 한자 非但(다만·오직)으로, 초벌의 '비단 너머'는 오역임. '비단 너뿐이 아니거든'은 '오직 너 하나뿐이 아니거늘'이라는 뜻.

37. '안젼'은 眼前(눈앞)으로, '안전의 용납지 못하리라'는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

38. '복지유쳬'는 伏地流涕로,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림'의 뜻이다. 초벌의 '복수(復讐)'는 오역이다.

39. '감이 일언을 고치 못ᄒᆞ고'는 '敢(감)히 一言(한 마디)을 告(고)하지 못하고', 즉 '감히 한 마디도 아뢰지 못하고'의 뜻이다. '말을 고치다'가 아니다.

40. '공(公)'은 길동의 아버지인 재상을 높여 부른 말이다.

41. '과인'은 過人(남보다 뛰어남)으로 옮겼으며, 임금이 자신을 가리키는 寡人이 아님.

42. 초벌의 '길동이 보니'는 오역으로, 원문 '길동이 본ᄃᆡ'는 '길동이 본디(본래)'라는 뜻임. 또한 침소에서 운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길동임.

43. '쟝뷔 셰상의 쳐ᄒᆞ미'는 '丈夫(장부)가 세상에 處(처)하매', 즉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라는 뜻이다. 초벌의 '세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은 오역.

44. '금셰의 모ᄌᆡ 되오니'의 '모ᄌᆡ'는 母子(모자)로, 길동과 어머니가 모자 사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초벌의 '어머니가 되었으니'는 오역.

45. '복망'은 伏望(엎드려 바라건대), '귀쳬'는 貴體(귀하신 몸)로 옮김.

46. '쳥파'는 聽罷(청파)로, '말을 다 듣고 나서'라는 뜻이라 '이 말을 듣고'로 옮김.

47. 'ᄃᆡ경'은 大驚(대경), 즉 크게 놀란다는 뜻임.

48. '쳔싱'은 賤生(천생), 곧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첩의 자식)을 뜻하며, '천생 운명·타고난 운명'이 아님. 어머니가 길동에게 '천한 출생이 너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타이르는 대목임.

49. '협ᄒᆞᆫ 마음'은 狹한 마음, 곧 좁고 옹졸한 마음을 뜻함.

50. '간쟝을 ᄉᆞ로다'는 간장(肝腸)을 사르다, 곧 애를 태워 큰 슬픔·괴로움을 안긴다는 관용 표현임.

51. '쳔싱'은 賤生(천한 신분으로 태어남)으로, 초벌의 '천재적인 재능'은 오역임.

52. '효측'은 效則(본받다)이므로 '효심을 다하다'가 아니라 '본받아'로 옮김.

53. '샹공의 춍을 닐흘가'는 '상공(아버지)의 총애(寵)를 잃을까'라는 뜻으로, 초벌의 '총명을 닮았는지'는 오역임.

54. '곡산모'는 곡산 출신의 첩(소설 속 초란)을 가리켜 '곡산댁'으로 옮김.

55. '곡산모'는 곡산 출신 첩을 출신지로 부른 호칭이라 '곡산댁'으로 옮김. 母女(모녀)가 아님.

56. '춍쳡'은 寵妾(총첩)으로, 특별히 사랑받는 첩을 뜻함.

57. '졔 심즁의 불합ᄒᆞ면 공긔 춤쇼ᄒᆞ니'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공께(남을) 참소(讒訴)하니'의 뜻.

58. '심즁의 앙양ᄒᆞ여'의 '앙양'은 怏怏(앙앙), 곧 마음속 원망·불만을 뜻하므로 '마음속으로 원망하여'로 옮김.

59. '닐우면'은 '이루면'(이루다)으로, 초벌의 '말한다면'은 오역임.

60. '이 곳'은 장소가 아니라 '이는 곧'의 뜻으로, '내 한 몸 평안함은 곧 길동을 없애는 데 있다'로 옮김.

61. '쇼원'은 所願(소원), '일신'은 一身(한 몸).

62. '무녜'는 무녀(巫女), 곧 무당이다. 초벌의 '무릎을 탁 치며'는 오역으로, '무녀'를 잘못 옮긴 것이다.

63. 'ᄃᆡ왈'은 對曰, 곧 '대답하여 말하기를'이다.

64. '관상녜'는 관상녀(觀相女), 곧 관상을 보는 여자다. 초벌의 '관상가'와 달리 여성임.

65. '쳔거'는 천거(薦擧, 추천함)로, 관상녀를 상공께 추천하는 것이다. 초벌의 '천기를 살펴'는 오역.

66. '대혹'은 大惑(크게 미혹됨)으로,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관상녀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다.

67. '그 아이를 없애고자 하시리니'가 핵심으로, 길동을 제거하려는 음모다. 초벌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는 정반대의 오역.

68. 'ᄃᆡ희'는 大喜(크게 기뻐함)로, 초벌의 '대답하여'는 오역임.

69. '상ᄌᆞ'는 相者, 곧 관상가(관상 보는 사람)이며, 물건을 담는 '상자(箱子)'가 아님.

70. '무녜'는 무녀(巫女)가 주어로 쓰인 것으로, 초벌의 '무례하게'는 오역임.

71. '쳔싱'은 賤生(천한 출생)으로, 길동이 첩의 소생이라 천하게 태어난 것을 가리킨다. 초벌의 '천성(天性)이 비범함'은 오역이라 바로잡음.

72. '고이히 녁여'는 '괴이히 여겨'(이상하게 여겨)이다. 초벌의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는 오역.

73. 여기서 '공(公)'은 임금이 아니라 길동의 아버지인 재상을 높여 부른 말이다.

74. 'ᄎᆞ연'은 此言(차언, 이 말)으로, 앞서 나온 관상가의 말을 가리키므로 '이 말'로 옮김.

75. 'ᄂᆡᄉᆞ'는 來事(내사, 앞으로 올 일·장래)로 보아 '앞일'로 옮김. 초벌의 '내력'과 다름.

76. '상녜'는 관상을 보는 사람(相女/相者)으로, 초벌의 '상대'는 오역임. '뵈니'는 길동을 불러 관상가에게 보였다는 뜻.

77. '지쳬'는 肢體(몸)가 아니라 '지체', 곧 신분·사회적 지위를 뜻함. 길동이 첩의 자식이라 신분이 낮다는 의미로,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이라 '신분이 부족하다'로 옮김.

78. '염녀'는 念慮(걱정·염려)이며, 초벌의 '여인(女)'은 표음만 보고 잘못 옮긴 오역임.

79. '공자(公子)'는 귀한 집안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을 가리킴.

80. '고히 녁여'의 '고히'는 怪이(괴이)로, '정성스럽게'가 아니라 '이상하게'의 뜻임. '공(公)'은 길동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임금이 아님.

81. '상녜'는 尙書(상서)로,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관직명이라 '상서'로 옮김.

82. '흉즁의 죠홰 무궁ᄒᆞ고'의 '죠회'는 한자 造化(조화)로, 초벌의 '흉한 기운'은 오역이다. 가슴속에 품은 조화·역량이 무궁하다는 뜻으로 옮겼다.

83. '미간의 산천 졍긔 영농ᄒᆞ오니'의 '영농'은 玲瓏(영롱)으로, 산천의 정기가 영롱하게 어려 있다는 뜻이다.

84. '쳥파'는 聽罷(듣기를 마침)로, 장소나 경치가 아니라 '말을 다 듣고 나서'의 뜻이라 그렇게 옮김.

85. '경아'는 驚訝(놀라고 의아해함)로 보아 '놀라며'로 옮김.

86. '반향'은 半晌(한참 동안)으로 보아 '한참을'로 옮김.

87. '공(公)'은 임금이 아니라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88. '일동일정'은 一動一靜으로, 모든 행동거지·일거수일투족을 뜻함. 초벌의 '일과 일정'은 오역임.

89. '육도삼약'은 六韜三略(육도삼략)으로, 강태공의 『육도』와 황석공의 『삼략』을 합쳐 부르는 대표적인 병법서임.

90. '산졍'은 山亭으로, 산속에 지은 정자를 가리킴.

91. '범남한 의사'의 '범남'은 氾濫(분수에 넘침)으로, '외람되고 분수에 넘치는 생각'으로 옮김.

92. '상녀'는 相女, 곧 관상을 보는 여자(관상녀)로, 앞서 길동의 비범하고 위험한 운명을 예언한 인물을 가리킴.

93. '상ᄌᆞ'는 相者(관상 보는 사람)로, '상자'라는 물건이 아니라 관상가를 뜻함.

94. '교통'은 交通으로, 여기서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서로 내통·결탁함'을 뜻함.

95. '특지'는 자객의 이름(特才)이며, '쳔금'은 千金(많은 돈)을 들였다는 뜻.

96. '상녀'는 相女(관상 보는 여자)로, 앞서 초란이 길동의 장래를 점치게 하려고 부른 관상녀를 가리킴. 초벌의 '아가씨'는 오역.

97. '쳔쳡'은 賤妾(천한 첩), 곧 초란이 자신을 낮춰 부른 말. 초벌의 '천금 같은 재물'은 표음만 보고 잘못 옮긴 것임.

98. '져를 업시헐만 갓지 못ᄒᆞ리로쇼이다'는 '그(길동)를 없애느니만 못하다', 즉 '차라리 일찍 없애는 것이 낫다'는 뜻. 초벌의 '모른 척 지나치지 마소서'는 정반대의 오역.

99. '쟝즁'은 掌中(손바닥 안)으로, 일이 내 통제 안에 있다는 뜻임. 초벌의 '장군(將軍)'은 오역.

100. '좌랑'은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속한 정육품 관직(佐郎)으로, 길동의 형인형의 벼슬을 가리킴.

101. '환휘 위즁'은 患候 危重으로 '병환(환후)이 위중함'이라는 뜻이며, 초벌의 '휘둘러 생각하시기를'은 오역임.

102. '쳔ᄒᆞ온 소견'은 '賤한 소견', 곧 말하는 이가 자기 의견을 낮춘 '천한 소견(보잘것없는 제 생각)'으로 옮김.

103. '문호(門戶)'는 집안·가문을 뜻하며 여기서는 '가문을 보존함'으로 옮김.

104. '텬뉸'은 天倫(천륜)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혈육의 정을 뜻함. '지즁'은 至重(지중)으로 더없이 무겁고 소중하다는 뜻. '行ᄒᆞ리오'는 '(차마) 그렇게 행하겠느냐'는 뜻으로, 길동을 죽이려는 모의를 두고 하는 말임.

105. '낭즁취물(낭중취물)'은 囊中取物로,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듯 쉬운 일을 뜻함. 초벌의 '낭중에 물건을 던지듯'은 오역.

106. '샹공이 아르시나 혈 길 업ᄉᆞ올리니'는 '상공이 아신들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찌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상공이 사후에 알게 되어도 손쓸 방도가 없다는 의미. 초벌의 '피할 길이 없다'와는 주체와 뜻이 다름.

107. '차마 못 할 바로되'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이라는 뜻으로, 초벌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은 오역임.

108. '상공(相公)'은 재상·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109. '문호(門戶)'는 집안·가문을 뜻함.

110. 'ᄃᆡ희'는 大喜(크게 기뻐함)로, 초벌의 '대답하며'는 오역임.

111. '금야(今夜)'는 '오늘 밤'을 뜻함.

112. 'ᄎᆞ셜'은 한자 且說(차설)로, 옛 소설에서 화제를 바꿔 새 이야기를 꺼낼 때 쓰는 관용구라 '한편'으로 옮김.

113. '쵹을 밝히고'의 '쵹'은 燭(촛불)이며, '쥬역을 즘심'은 周易(주역)을 潛心(잠심,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몰두함)하는 것이다. 초벌의 '닭 울음', '새벽녘'은 오역.

114. '엄녕이 지즁'은 嚴令(엄령, 엄한 명령)이 至重(지중, 지극히 무거움)한 것이며, 초벌의 '꾸지람'과 달리 명령이라는 뜻.

115. '즘싱'은 '짐승'으로, 초벌이 '이즈음'(시간)으로 옮긴 것은 오역임. '밤을 써리거ᄂᆞᆯ'도 '밤을 꺼리거늘'(짐승이 밤을 꺼린다)이며 '밤이 깊어가는 때'가 아님.

116. '특재(特才)'는 길동을 해치러 온 자객의 이름이다. 초벌의 '적'은 오역.

117. '대경(大驚)'은 '크게 놀람'이며, 초벌의 '크게 경계함'은 오역.

118. '사경(四更)'은 새벽 1~3시 무렵을 가리키는 시각 표현.

119. '진퇴유곡(進退維谷)'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처지를 뜻한다.

120. '져 쇼릭'·'져 불기'의 '져'는 笛(피리)으로, 소년이 부는 피리 소리다. 초벌의 막연한 '소리'·'불길한 기운'은 오역.

121. '무죄한'은 無罪(죄가 없음)로, '죄 없는'으로 옮김.

122. '턴익'은 天厄(하늘이 내리는 재앙·벌)으로, '천벌'로 옮김.

123. '특재'(특ᄌᆡ)는 길동을 죽이러 온 자객의 이름(特才)이다. 초벌의 '특별히'는 오역이다.

124. '사석(ᄉᆞ셕)'은 沙石, 곧 모래와 돌이다. 초벌의 '번개'는 오역이다.

125. '대호(ᄃᆡ호) 왈'은 大呼, 즉 크게 외쳐 말한다는 뜻이다. 말하는 이는 길동이 아니라 자객 특재이다.

126. '상ᄌᆞ'는 相者(관상쟁이)로, 무녀와 함께 길동을 모해하는 인물로 등장하므로 '관상쟁이'로 옮김.

127. '쵸난'은 초난이라는 인물(곡산댁, 길동을 해치려는 첩)의 이름임.

128. 'ᄃᆡᄆᆡ 왈'의 'ᄃᆡᄆᆡ'는 大罵(크게 꾸짖음)로, 단순히 '말했다'가 아니라 '큰소리로 꾸짖으며 말했다'는 뜻임.

129. '원쉬'는 怨讐(원수)로, 길동이 자신을 해치려 한 자를 꾸짖는 말이다.

130. '쵸난'은 인물 이름 초난(특재를 시켜 길동을 죽이려 한 곡산모)으로, 초난과 공모했다는 뜻이라 '한패가 되어'로 옮김.

131. '냥인'은 兩人(두 사람)으로, 길동이 죽인 자객과 관상녀(무녀)를 가리킴. 초벌의 '양반'은 오역.

132. '건상'은 乾象(하늘의 형상, 천문)으로 옮김. 초벌의 '몸 상태'는 오역.

133. '슈회'는 愁懷(시름·근심)로, '슈회를 돕는다'는 시름을 더한다는 뜻. 초벌의 '깊은 밤'은 오역.

134. '망명도생'은 亡命圖生(망명하여 살길을 도모함)으로, 멀리 달아나 목숨을 보전할 방도를 꾀한다는 뜻.

135. '인견'은 引見(불러들여 만나봄)으로, 공이 길동을 불러들여 말한 것.

136. '부싱모휵지은'은 父生母慉之恩으로 '아버지가 낳아 주시고 어머니가 길러 주신 은혜'를 뜻함. 초벌의 '부성 모후'는 오역임.

137. '샹공'은 相公으로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이며,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138. '변괴'는 한자어 變怪로, 뜻밖의 괴이한 일·재앙을 뜻해 '변고'로 옮김.

139. '바린'은 '버린'(버려진)으로, 초벌의 '바른'은 오역. 서자인 길동이 자신을 '상공이 버린 자식'이라 칭한 것임.

140. '부운'은 浮雲(뜬구름)으로, 정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비유함.

141. '쌍뉘 죵횡'은 雙淚縱橫으로, 두 줄기 눈물이 이리저리 흘러내림을 뜻함. 초벌의 '두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여'는 오역임.

142. '기유'는 開諭(개유)로, 사정을 알아듣게 타일러 깨우친다는 뜻이라 '타이르며'로 옮김.

143. '공'은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144. '호부호형(呼父呼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른다는 뜻으로, 서자라서 그렇게 부르지 못하던 길동에게 그 호칭을 허락한다는 의미임. 초벌의 '어머님'은 오역임.

145. '일편지한'은 一片之恨(한 조각의 맺힌 한)으로, 초벌의 '짧은 글'은 오역임

146. '야야(爺爺)'는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라 '아버지'로 옮김

147. '복망'은 伏望(엎드려 바람)으로, 간곡히 청하는 관용 표현임

148. '지비'는 再拜(두 번 절함)로, 초벌이 누락한 부분임.

149. '붓드지 못ᄒᆞ고'는 '붙들지(만류하지) 못하고'이며, '붓을 들지'가 아님.

150. '무ᄉᆞᄒᆞ물'은 無事함을, 즉 '무사하기를'이며 '무엇이라도'가 아님.

151. '귀쳬'는 한자어 貴體로, 상대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 '귀하신 몸'으로 옮김.

152. '슬하'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를 뜻하는 말로, '집'이 아니라 부모 곁을 떠난다는 의미임.

153. '집슈'는 執手(집수), 곧 '손을 잡음'이라 '손을 붙잡고'로 옮김. 초벌의 '집에서'는 오역.

154. '쳐쇠 쵸원ᄒᆞ여'는 處所가 稍遠하여, 곧 '거처가 (조금) 멀어'라는 뜻으로 옮김. 길동이 첩의 자식이라 한집에 살아도 어머니와 거처가 떨어져 있었음을 가리킨다.

155. '연연ᄒᆞ더니'는 戀戀, 곧 늘 그리워했다는 뜻이다.

156. '모ᄌᆡ 상봉'은 母子相逢으로, 막연히 '다시 만남'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의 상봉을 가리킨다. 이 대사는 길동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157. '지비 ᄒᆞ직'은 再拜下直(재배하직)으로, 두 번 절하고 작별을 고한다는 뜻이라 그렇게 옮김.

158. '운산이 쳡쳡'은 雲山(운산, 구름 낀 산)이 첩첩하다는 뜻으로, 초벌의 '허둥지둥'은 오역임. '지향업시'는 갈 곳·방향 없이 정처 없다는 뜻.

159. '길동은 간 ᄃᆡ 업고'는 '길동은 간 데 없고', 즉 길동이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뜻임. 초벌의 '간을 베어 들고'는 '간 데(곳)'를 신체 부위 '간'으로 오해한 오역임.

160. '좌랑'은 관직명(佐郞)으로, 여기서는 그 벼슬에 있는 상공의 적자(길동의 이복형)를 가리킴.

161. '차설(且說)'은 고전소설에서 장면을 전환할 때 쓰는 상투어로 '한편'에 해당함.

162. '고히 녁여더니'는 '괴이(怪異)하게 여기더니', 즉 '이상하게 여겼더니'의 뜻으로, 초벌의 '고이 밤을 지새우더니'는 오역임.

163. '가마니'는 가마(탈것)가 아니라 부사 '가만히'(남몰래, 조용히)이다. 초벌의 '가마의 형편'은 오역.

164. '시쳬'는 屍體(시체)로, 앞서 길동을 해치려다 죽은 자객(특재)의 주검을 가리킨다.

165. '좌랑'은 정육품 관직(佐郞)으로, 여기서는 길동의 형 인형을 가리킨다.

166. '경개 졀승'은 景槪絕勝으로 '경치가 빼어나다'는 뜻으로 옮김.

167. '슈ᄇᆡᆨ 호 인ᄀᆡ'는 數百戶 人家, 즉 '수백 채의 집'으로, 초벌의 '수백 명의 도적'은 오역임.

168. '녹녹지 아니'는 碌碌(녹록)으로, 평범하거나 만만하지 않다는 뜻임.

169. '그ᄃᆡ'는 '그대(=당신)'로, 초벌의 '그'는 오역임.

170. 'ᄎᆞᄌᆞ 왓ᄂᆞ뇨'는 '찾아왔느냐'로, 초벌이 사람 이름처럼 옮긴 '차자'는 오역임.

171. '괴슈'는 魁首(우두머리)이며, '졍치 못ᄒᆞ여시니'는 '정(定)하지 못하였으니'로 옮김.

172. '용넉'은 勇力(용맹한 힘)이고, '춤예'는 參預(참여하다)로, 초벌의 '참모'는 오역임.

173. '지비'는 再拜(재배), 즉 두 번 절하는 것으로 윗사람에게 올리는 큰절을 뜻함.

174. '쇼싱(소생)'은 첩이 낳은 자식을 뜻하므로 '천첩 소생'을 '천한 첩이 낳은 아들'로 옮김. 초벌의 '천재 소년'은 오역임.

175. '경셩'은 서울(한양)을 가리키며 경상도가 아님.

176. '져만흔 돌 들기를 근심ᄒᆞ리오'는 '저만한 돌 드는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라는 반어로, 무거운 돌도 거뜬히 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임. 초벌의 '들지 못할까 걱정'은 정반대 오역임.

177. '졔젹'은 諸賊(여러 도적)으로, 초벌의 '제적과 일시'는 오역임. '일시의'는 一時(일제히)라는 부사구라 사람을 가리키지 않음.

178. '슈쳔 명'은 數千名(수천 명)으로, 무리의 규모를 가리킨다. 초벌의 '춘천 땅'은 지명으로 본 오역임.

179. '이 돌 들 ᄌᆡ'의 'ᄌᆡ'는 한자 者(자, 사람)로, '이 돌을 들 사람'이라는 뜻임.

180. '백마를 잡아 맹세한다'는 흰 말을 잡아 그 피를 나누며 맹세하는 옛 결맹 의식(歃血盟誓)으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뜻함.

181. '즁인'은 衆人(여러 사람·무리)으로, 모여 있던 도적 무리 전체를 가리킴.

182.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으로, 길동을 따르는 무리를 가리킴. 초벌의 '제자'는 근거가 없어 '여러 사람'으로 옮김.

183. '슈월지ᄂᆡ'는 數月之內(몇 달 안에)로, 초벌의 '수월지'라는 지명이 아님.

184. '하인ᄉᆞ'는 '하인들'이 아니라 합천에 있는 절 海印寺(해인사)임. 뒤에 그 재물을 탈취한다는 문맥상 사찰을 가리킴.

185. '아 등(我等)'은 '우리들'이라는 뜻으로, '제가'(단수)가 아니라 도적 무리 전체를 가리킴.

186. '발군'은 拔群(남보다 뛰어남)이 아니라 發軍(군대를 일으켜 출동함)으로, 뒤이어 '그대들은 지위대로 하라'며 부하들에게 직위에 따른 행동을 명하는 문맥과 맞음. 초벌의 '뛰어난 인물이 됨'은 오역.

187. '지위대로'는 地位(직위)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으로 옮김.

188. '슈 인'은 數人(수인), 곧 '몇 사람'이라는 뜻으로, 종자(따르는 하인)가 여럿임을 가리킴.

189. '졀'은 절(寺, 사찰)로, 초벌의 '상황'은 오역임. '동정'은 動靜(동정, 움직임·형편)으로 절의 사정을 살핀다는 뜻.

190. '완연ᄒᆞᆫ 지샹가 ᄌᆞ졔라'는 '완연한 재상가(宰相家)의 자제(子弟)라'로, 그 인물의 풍모가 영락없이 재상 집안 자제처럼 보였다는 뜻이다.

191. '경셩'은 京城으로 서울을 가리키며, 초벌의 '경상도'는 오역임.

192. 'ᄌᆞ졔'는 子弟(자제)로, 한집안의 젊은이를 뜻하며 초벌의 '적자(嫡子)'와 다름.

193. '빅미 이십 셕'은 白米 二十石(백미 스무 석)으로, 초벌의 '백 미'는 띄어 읽은 오역임.

194. '졔승'은 諸僧(여러 승려)으로, 절에 있는 승려들을 가리킴.

195. '빅미 니십 셕'은 백미(白米) 이십(二十) 석으로, 쌀 스무 석을 뜻함.

196. '아모날'은 한자 某날로, 특정한 어느 날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이라 '어느 날'로 옮김.

197. '이리이리'는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생략하고 가리키는 표현이라 '이러이러하게'로 옮김.

198. '하인ᄉᆞ'는 海印寺(해인사)로, 초벌의 '하인들'은 오역임. 길동이 도적질하려는 절 이름.

199. '슈십 인'은 數十人(수십 명)으로, 초벌의 '스무 명'은 부정확함.

200. 'ᄌᆞᄋᆞᆼᄌᆞ'는 從者(따르는 사람, 종자), '졔승'은 諸僧(여러 승려), '문왈'은 問曰(물어 말하기를)임.

201. '황감'은 황공하고 감격스럽다는 뜻의 한자어 惶感으로, '황망'(慌忙, 다급함)이 아니라 윗사람의 은혜에 감격해 송구해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202. '모릐'는 모래(沙)로, 길동이 음식에 모래가 있는 척 꾸미려고 입에 넣은 것임. 초벌의 '모르는 사람'은 오역.

203. '샤죄'는 謝罪(사죄), 즉 승려들이 음식에 모래가 들어간 줄 알고 사과한 것이며, 초벌의 '소리쳐 꾸짖다'는 오역.

204. '거즛 ᄃᆡ로'는 '거짓으로 大怒(크게 노함)', 곧 화난 척 꾸민 것임.

205. '졔승'은 諸僧(여러 중들)으로, 도적에게 결박당하는 해인사 승려들을 가리킨다.

206. 'ᄉᆞ즁'은 寺中(절 안·절 안 사람들)으로 보아 '절 안 사람들'로 옮겼다.

207. 'ᄃᆡ젹 슈빅여 명'은 大賊(큰 도적 무리) 수백여 명으로, 길동이 거느린 도적 떼를 가리킨다.

208. '닙으로 쇼릐만 지를 ᄲᅮ름이라'는 '입으로 소리만 지를 뿐이었다'는 뜻이다. 초벌의 '입술만 깨물며'는 오역이다.

209. '불목한'은 절에서 불을 때고 밥을 짓는 일꾼(부목한, 火木漢)으로, 초벌의 '불량한 사람'은 오역임.

210. '합쳔원'은 합천(陜川) 고을의 원님(수령)을 가리킴. '죠발'은 調發로 군사를 동원한다는 뜻.

211. '쟝교'는 將校(장교)로, 초벌의 '군사'보다 정확히는 장교 수백 명을 뜻함.

212. '즁'은 僧(스님)이며 초벌의 '한 놈'은 오역. '숑낙'은 송낙으로, 승려가 쓰는 고깔모자임.

213. 여기서 '뫼'는 山(산)을 뜻하며 '뫼의 올나'는 '산에 올라'로 옮김.

214. '쇼로'는 小路(좁은 길·샛길)로, 단순히 '북쪽'이 아니라 '북쪽의 작은 길'을 가리킴.

215. '그 졀 즁'은 '그 절(寺)의 중(僧, 승려)'으로, 길동이 승려로 변장했기에 관군이 절의 중을 의심한 것임. 초벌의 '무리 중 하나'는 오역.

216. '쇼로'는 小路(작은 길)로 옮김. '소리 없이'가 아님.

217. '졔젹(諸賊)'은 길동의 부하 도적들을 가리킴. '제 적(자기 적)'이 아님. '남편 ᄃᆡ로'는 남쪽(南便) 큰길(大路)임.

218. '즁의 복식(服色)'은 승려 옷차림이라는 뜻으로, 초벌의 '복사 옷'은 오역.

219. '슈탐(搜探)'은 찾아내어 거두어 옴, '쇼왈(笑曰)'은 웃으며 말함.

220. '쟝뷔'는 丈夫(장부, 사내대장부)이며, 초벌의 '장차'는 오역임.

221. 'ᄌᆡ죄'는 才(재주)로, 罪(죄)가 아님. '재주가 없으면'으로 옮김.

222. '즁인 괴슈'는 衆人 魁首로 '뭇사람의 우두머리'를 뜻함. 괴수(魁首)는 무리의 두목을 가리키며, 초벌은 이를 누락함.

223. '할빈당'은 活貧黨(활빈당)으로, '가난한 이를 살리는 무리'라는 뜻의 이름이라 '활빈당'으로 옮김.

224. '지빈무의한 재'의 '재'는 者(사람)로, 가난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뜻함. 초벌의 '의지할 곳 없는 재물'은 오역.

225. '졔젹'은 諸賊(여러 도적), '의취'는 義趣(의로운 뜻·취지)임. 초벌의 '온 세상 사람들'은 오역.

226. '쥰민고틱'은 浚民膏澤(준민고택)으로, 백성의 재물(膏澤, 기름과 진액)을 짜내듯 가혹하게 수탈한다는 뜻의 한자어다.

227. '함경감ᄉᆡ'의 '감ᄉᆡ'는 監司(감사)로, 한 도(道)를 다스리던 종이품 지방 장관(관찰사)이다.

228. '감ᄉᆡ'는 監司(감사), 곧 한 도의 으뜸 벼슬인 관찰사를 가리킴. 초벌의 '사또'와 달리 도 단위 장관임.

229. '젼곡(錢穀)'은 돈과 곡식, '군긔(軍器)'는 무기를 뜻함. 초벌이 '곡식과 무기'로만 옮긴 것을 바로잡음.

230. '물ᄉᆞᆯ틋'은 '물 끓듯'으로, 성안이 들끓는 혼란을 묘사한 것임. 초벌의 '물 긷는 소리'는 오역.

231. '방을 붓쳐시되'의 '방(榜)'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내거는 글이며, 초벌의 '방패'는 오역.

232. '젼곡'은 錢穀(돈과 곡식)으로 옮김.

233. '할빈당'은 活貧黨(활빈당)으로, 길동이 거느린 무리의 이름이다. '도적떼'라는 일반 명사가 아님.

234. '힝슈'는 行首(행수), 곧 우두머리·두목을 뜻함.

235. '아모 날'은 某날(어느 날)로,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훔친 날짜를 밝히지 않은 표현임.

236. '발군(發軍)'은 군사를 일으켜 보낸다는 뜻으로, 초벌 번역의 '재능이 뛰어나다(拔群)'는 오역이다.

237. '젼곡'은 錢穀(돈과 곡식)으로, 재물과 곡식을 함께 이르는 말이라 '재물과 곡식'으로 옮김.

238. '합쳔 하인ᄉᆞ'는 합천 해인사(海印寺)로, 홍길동 일행이 재물을 터는 유명한 절 이름이다. 초벌의 '활빈당'은 오역.

239. '젼곡'은 錢穀(돈과 곡식)을 가리킨다.

240. '감영의 붓쳐시니'는 '감영에 붙였으니'로, 길동이 제 이름을 써서 관청에 게시했다는 뜻이다. 초벌의 '감영을 쳤으니'(공격)는 오역.

241. '감영(監營)'은 관찰사가 일을 보던 지방 관청을 말한다.

242. '쵸인'은 草人, 곧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 인형으로, 길동이 도술로 분신을 만드는 대목이라 '짚으로 만든 초인'으로 옮김.

243. '호풍환우'는 呼風喚雨로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부리는 도술을 뜻함.

244. '여듧 길동'은 여덟 명의 길동이며, 초벌의 '수십 명'은 오역.

245. '도로의 힝인이 끈쳐시니'는 行人(길 가는 사람)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초벌의 '도적의 행패'는 오역.

246. '봉물(封物)'은 봉하여 올려 보내는 진상품·예물을 가리킴.

247. '감ᄉᆡ 이 일노 장계ᄒᆞ니'는 감사(관찰사)가 이 일을 장계(狀啓,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로 올린 것이며, 초벌의 '감사에게 보고하니 감사가 대답하기를'은 오역.

248. '대적(大賊)'은 큰 도적이라는 뜻으로 옮김.

249. '봉송하는 물종'은 封送하는 物種, 곧 봉하여 올려 보내는 진상·공물 물품을 가리켜 '봉하여 올려 보내는 진상 물품'으로 옮김.

250. '복망(伏望)'은 '엎드려 바라옵건대'라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관용 표현임.

251. '좌우 포청'은 조선의 포도청이 좌포청·우포청 둘로 나뉘어 있던 것을 가리킴.

252. '포쟝'은 捕將(포도대장)이며, '명쵸'는 命招(임금이 명하여 불러들임)로 옮김. 초벌의 '포상을 내림'은 오역임.

253. '장게'는 狀啓로, 지방관이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 문서임.

254. '젼곡 일흔 일ᄌᆞ'는 錢穀(돈과 곡식)을 '잃은'(도둑맞은) 日字(날짜)라는 뜻임. '일흔'은 동사 '잃다'이지 숫자 70이 아니며, 초벌의 '일흔일 자'·'하루에 한 시'는 오역임. '한 날 한 시'는 도둑맞은 시점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다는 뜻임.

255. '치위'는 治威가 아니라 옛 중국의 전설적 전쟁의 신 蚩尤(치우)로, 황제와 싸운 용맹의 상징이라 '옛날의 치우'로 옮김.

256. '발군'은 '실력이 뛰어남'이 아니라 發軍, 즉 군사를 출동시킨다는 뜻이라 '군사를 내어'로 옮김.

257. '좌우 포장'은 좌포도청·우포도청의 우두머리인 좌포장과 우포장을 가리킴.

258. '포쟝'은 捕將(포도대장)으로, 포도청을 지휘하던 무관직임. 초벌의 '포정(포도청 관리들)'은 부정확함.

259. '병츌'은 並出(함께 나아감·출동함)로, 좌우 두 포도대장이 함께 나설 것 없이 자신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임.

260. '샹'은 上(임금)으로, '올히 녁이샤'는 '옳게 여기시어'의 뜻이라 옮김.

261. '수삼 인'은 두세 명(數三人)으로, 수십 명이 아님.

262. '포쟝'은 도적을 잡는 책임자 포장(捕將)으로, 여기서는 이흡을 가리킴. 초벌의 '포졸들이 의심'은 오역이며, 원문은 포장이 소년의 인사에 답례한 것임.

263. 인용된 '보천지하 막비왕토, 솔토지민 막비왕신'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북산(北山) 편의 '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을 빌린 구절로, 천하의 모든 땅과 백성이 임금에게 속한다는 뜻임.

264. '쇼싱'은 小生으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 '소생'으로 옮김. '향곡'은 鄕曲(시골 구석)임.

265. '겨즛'은 '거짓'으로, 여기서는 '짐짓 ~하는 척하다'의 뜻이라 '놀라는 척하며'로 옮김.

266. '용녁'은 勇力(굳센 힘·용맹)으로, 초벌의 '용(龍)이 있는 사람'은 오역임.

267. '만힝'은 萬幸(매우 다행함)이라 '큰 다행'으로 옮김.

268. '지죠'는 才操(재주·솜씨)임.

269. '포쟝'은 捕將, 곧 포도대장(捕盜大將)을 줄여 부른 말임.

270. '졔 아모리 용녁이 잇슨들'의 '졔'는 '제'(저 아이, 곧 소년)를 가리키며, 초벌의 '내 아들놈'은 오역임.

271. '민오'는 '세게·몹시'를 뜻하는 옛말 부사로, 초벌의 '두 발을 매고'는 오역임.

272. '쟝식'는 壯士(힘센 장사)로, 초벌의 '장사꾼(商人)'이 아님. 무예·힘을 시험하는 문맥이라 力士의 뜻으로 옮김.

273. '오쟝'은 五臟(오장)으로, 채여서 몸속이 울릴 만큼 상대의 힘이 셌다는 뜻.

274. '포쟝'은 捕將(포장)으로, 도적을 잡으러 나온 포도청 군관의 우두머리다. 초벌의 '포졸'은 부정확하여 '포장'으로 옮김.

275. '져 쇼년 혼ᄌᆞ라도 길동 줍기를 근심ᄒᆞ리오'는 '저 소년 하나만 (데리고) 있어도 길동 잡는 일을 걱정하겠는가'라는 뜻으로, 초벌처럼 '소년이 나를 잡는다'는 의미가 아님.

276. '포쟝'은 捕將(포도대장)을 가리킴.

277. '호련'은 忽然(홀연, 갑자기)으로, 초벌의 '산곡으로 좇아가는'은 오역임.

278. '슈십'은 數十(수십)으로, 초벌의 '열 명'은 오류임.

279. '즙아오물 당부'는 '잡아오기를 당부'이며, 초벌의 '칼을 쥐어 잡으라'는 오역임.

280. '니흡'은 인명(이흡)으로, 포도대장의 이름임. 초벌의 '직분'은 오역.

281. '쳘식'은 鐵索(쇠줄)로, 목을 옭아맨 도구이다. 초벌의 '철석같이'는 오역.

282. '포쟝'은 捕將(포도대장), 길동을 잡으러 온 인물이다. '혼불부체'는 魂不附體(혼비백산).

283. '황건역ᄉᆡ'는 黃巾力士로, 누런 두건을 쓴 신장(神將). '버렷고'는 '버려져'가 아니라 '벌였고(좌우로 늘어서 있고)'의 뜻.

284. '여셩 왈'의 '여셩'은 厲聲(엄하고 큰 소리)으로, 군왕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이다. 초벌은 이 부분을 누락함.

285. '풍도성(酆都城)'은 도교에서 죽은 자의 혼이 가는 저승의 성을 가리킴.

286. '쇼인'은 小人으로,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라 '소인'으로 옮김.

287. '혼미혼'은 寒微한(지체가 낮고 보잘것없는)이라 '미천한'으로 옮김. 초벌의 '한결같은'은 오역.

288. '인간'은 人間, 곧 사람이 사는 세상(인간 세상)을 뜻함.

289. '젼샹'은 殿上(전상), 곧 임금이 앉은 자리 위를 가리킴. 초벌의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는 오역으로, 원문은 그곳에서 누군가 웃으며 꾸짖는 장면임.

290. '행수(行首)'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직임으로, 여기서는 활빈당의 두목 길동을 가리킴.

291. '용역'은 勇力(용맹과 힘)이며, 초벌의 '용기'보다 무력의 뉘앙스를 살려 옮김.

292. '청포소년(靑袍少年)'은 푸른 도포를 입은 소년으로, 길동이 보낸 안내자를 가리킴.

293. '언파(言罷)'는 '말을 마침'을 뜻하는 한자어로, 앞서 한 말을 끝냈다는 의미로 옮김.

294. '믄 거슬 글너'는 '묶은 것을 끌러(풀어)'의 옛 표기로, 결박을 푸는 장면임. 초벌의 '거슬러'는 오역.

295. '단니지'는 '다니다'로, 초벌의 '단념하지'는 오역임. '괜히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옮김.

296. '죄칙'은 罪責(죄를 추궁당함)으로, 초벌의 '추적'은 오역임. 나를 보았다고 발설하면 그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의미로 옮김.

297. '포쟝'은 捕將(포도대장)으로, 앞 단락에서 길동을 잡으러 온 인물이다. 초벌의 '포졸'은 직급이 다르다.

298. '됴화'는 造化(조화), 곧 길동의 신통한 술법을 가리킨다.

299. '호련'은 忽然(홀연·갑자기), '사지(四肢)'는 팔다리를 뜻한다. 초벌의 '호랑이 새끼'는 표음을 잘못 읽은 오역이다.

300. '부듸'는 負袋(부대·자루)로, 초벌의 '부채'가 아니다. '셰이'는 셋, '남긔'는 '나무에'를 옮긴 것이다.

301. '쥬졈'은 酒店(주점)으로, 초벌의 '주상 전하'는 오역임. '자옵더니'는 '자고 있었다'는 뜻이라 초벌의 '모시고 있었다'도 오역임.

302. '호련'은 忽然(홀연, 갑자기)이며, 초벌의 '호랑이'는 표음을 잘못 푼 오역임. '풍운'은 風雲(바람과 구름).

303. '젼셜'은 傳說(전하여 말함)로, 일을 남에게 옮겨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옮김.

304. '슈 월'은 數月(몇 달)이며, 초벌의 '두어 달'은 막연한 추정이라 '몇 달'로 바로잡음.

305. 원문 '죄(罪)를 면치 못하리니'는 (길동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임무 실패로 인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라, 초벌의 '그에게 잡히고 말 것'을 바로잡음.

306. '변홰 불측'은 變化不測으로, 변방의 사정이 아니라 길동의 둔갑·변신술을 종잡을 수 없다는 뜻이라 '변신술이 종잡을 수 없었다'로 옮김. 이어지는 행동들은 임금의 말이 아니라 길동의 행적을 서술한 것임.

307. '쵸한도'는 軺軒(초헌, 고관이 타던 외바퀴 수레)에 조사 '도'가 붙은 것으로 '초한도(楚漢圖)'가 아님.

308. '노문(路文)'은 관원이 지방 출장 시 도착 예정을 미리 알리던 공문이고, '션참후계'는 先斬後啓로 죄인을 먼저 처형하고 나중에 임금께 아뢰는 것임. '계문(啓文)'은 임금께 올리는 보고서.

309. '작난(作亂)'은 난을 일으킴·소란을 피움의 뜻으로, 가벼운 '난동'보다 소동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강해 '소란을 부리다'로 옮김.

310. '장차 엇지 ᄒᆞ리오'는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로, 처벌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탄식하며 묻는 표현이라 초벌의 '처벌'은 과한 의역임.

311. '삼공뉵경'은 三公六卿으로, 조정의 최고위 대신들을 가리킴.

312. '장계'는 狀啓로, 지방 관리가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

313. '쟝계'(작난하는 장계)의 '작난'은 作亂(난을 일으킴)으로 옮김.

314. '됴신'은 朝臣(조신), 곧 조정의 신하를 가리키므로 '조정 신하들'로 옮김.

315. '작폐'는 作弊로 폐단을 일으키는 짓, 곧 귀신이 부리는 조화·소행을 뜻함.

316. '출반'은 出班으로, 신하가 조정의 반열에서 앞으로 나서는 것을 뜻한다. 초벌의 '출발'은 오역이다.

317. '쥬왈'은 奏曰로 '아뢰어 말하기를'의 뜻이며, 임금에게 올리는 말을 가리킨다.

318. '홍모(洪某)'의 '모'는 한자 某로, 작가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 '홍 아무개'로 옮김.

319. '부ᄌᆞ'는 父子(아버지와 아들)로, 길동의 아버지 홍 아무개와 형 홍인형 둘을 가리킴. 초벌의 '아들'은 한쪽만 옮긴 오역임.

320. '나래(拿來)'는 죄인을 잡아오게 함을 뜻하는 관용어이고, '친문(親問)'은 임금이 직접 신문(訊問)함을 말함.

321. '금부'는 義禁府(의금부)로, 조선 시대 중죄인을 다스리던 관청임.

322. '친국'은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며, '텬위'는 天威(천위), 곧 임금의 위엄을 뜻함.

323. '홍모'의 '모'는 한자 某(아무개)로 길동의 아버지 홍 아무개를 가리킴.

324. '셔졔'는 한자 庶弟로, 첩의 소생인 아우(이복동생)를 뜻하므로 '서제'로 옮김. 단순한 '형제'가 아님.

325. '즙아드리다(잡아들이다)'는 죄인을 체포해 끌고 온다는 뜻이므로 '잡아들이다'로 옮김. 초벌의 '보고하다'는 오역임.

326. 'ᄃᆡ환'은 大患(큰 근심·재앙), 'ᄃᆡ변'은 大變(큰 변고)으로 복원함.

327. '인형'은 인명으로, 길동의 형 홍인형을 가리킨다. 초벌의 '길동'은 오역.

328. '면관돈슈'는 免冠頓首로,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의 동작이다. 초벌처럼 사람 이름·대상이 아니다.

329. '쳔헌 아니'는 '천한 아우'로, 화자(길동의 적자 형)가 서얼 동생 길동을 낮춰 이르는 말이다. 초벌의 '전과(前科)'는 오역이다.

330. '명ᄌᆡ죠셕'은 命在朝夕(목숨이 아침저녁 사이에 달림)으로, 곧 죽을 만큼 위태롭다는 뜻이다.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다.

331. '만ᄉᆞ무셕'은 萬死無惜(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음)으로, 큰 죄를 자책하는 관용구다.

332. '부ᄌᆞ의 죄'의 부자(父子)는 신(자신)과 아비를 함께 가리킨다.

333. '문파'는 聞罷로, '다 듣고 나서'라는 뜻이라 그렇게 옮김.

334. '홍모'의 '모'는 한자 某(아무개)로, 작가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이며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킴.

335. '샹'은 上(임금)이고 '텬심'은 天心으로 임금의 마음을 뜻함.

336. '졔슈'는 除授로 벼슬에 임명함을 뜻하고, 경상감사(慶尙監司)는 경상도를 다스리는 지방 장관임.

337. '긔구'는 器具/機具(기구)로 감사라는 직책에 따르는 권위와 위세를 뜻한다. 초벌의 '상소문'은 오역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감사 직을 맡겨 그 권위로 길동을 잡게 하려는 맥락이다.

338. '경(卿)'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말이고, '감사(監司)'는 한 도를 다스리는 으뜸 벼슬인 관찰사다.

339. '달내는 방'의 '달내다'는 달래다(타이르다·회유하다)로, 길동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유하려는 방임. 초벌의 '좇는 자들을 잡기 위한 방'은 오역.

340. '인형'은 사람을 보살핀다는 뜻이 아니라 길동의 형 홍인형(인명)임. '백배사은(百拜謝恩)'은 임금의 은혜에 백 번 절하여 감사한다는 뜻이고, '도임(到任)'은 벼슬자리에 부임함을 가리킴.

341. '우리 아오 길동'의 '아오'는 '아우'(동생)로, 말하는 이는 길동의 형(홍인형)이다. 초벌이 '아버지'로 옮긴 것은 오역.

342. '군부'는 君父(임금과 아버지)이며, '도백'은 道伯(관찰사, 한 道를 다스리는 지방 장관)이다. 임금이 형을 도백으로 '제수'(除授, 관직을 내림)하여 길동을 잡게 한 것이라, 초벌의 '나를 불러 도리를 일러주며 보살펴 주라'는 오역.

343. '병니골슈'는 病入骨髓(병이 골수에 사무침), '관영'은 貫盈(죄악이 가득 참), '누대 청덕'은 累代 淸德(여러 대에 걸친 청렴한 덕), '일조'는 一朝(하루아침), '자현'은 自現(스스로 나타나 자수함)이다.

344. '원문(轅門)'은 군영이나 관아의 바깥문을 가리키는 한자어로, 감사가 머무는 관청의 정문을 뜻함.

345. '공사를 젼폐ᄒᆞ여'는 公事를 전폐(專廢)하여, 즉 다른 공무는 모두 미뤄두고의 뜻으로 옮김. 초벌의 '관원들에게 전하여'는 오역.

346. '하인 슈십'은 數十(수십 명)으로, 초벌의 '열 명'은 오역.

347. '당상의 올나 ᄇᆡ알ᄒᆞ거ᄂᆞᆯ'은 堂上에 올라 拜謁(배알)함, 즉 대청에 올라 절하여 뵘. 초벌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를 올리자'는 오역.

348. '좌우를 물니치고'는 곁에 있던 사람들(시종)을 물리쳤다는 뜻이며, 초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오역.

349. '오열유쳬(嗚咽流涕)'는 목메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림을 뜻하는 한자어. 이 감사는 길동의 형(인형)임.

350. 'ᄉᆞ싱죤망'은 死生存亡(사생존망)으로, 살고 죽는 생사를 뜻해 '살았는지 죽었는지'로 옮김.

351. '병입고항'은 病入膏肓(병입고황)으로, 병이 고황(고치기 어려운 깊은 곳)에 들어 위중해졌다는 뜻이라 '병이 깊이 드셨다'로 옮김.

352. 'ᄉᆡᆼ상'은 聖上(성상), 곧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

353. '경ᄉᆞ'는 京師(경사), 곧 도읍·서울을 뜻해 '도성'으로 옮김.

354. '슌슈'는 順受(순수), 곧 순순히 받아들임을 뜻함.

355. '머리를 슉이고'는 '머리를 숙이고'로, 초벌의 '굵적이며'는 오역임.

356. '경ᄉᆞ'는 京師(서울, 곧 임금이 있는 도성·조정)로, 초벌의 '경사스럽게'는 오역임.

357. '소제(小弟)'는 길동이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로, 자신을 결박해 도성으로 보내라는 뜻임.

358. '왕ᄉᆞ'는 往事(지난 일)이며, '부형(父兄)'은 아버지와 형을 함께 가리킴.

359. '쥬야 ᄇᆡ도ᄒᆞ여'의 '배도'는 倍道로 밤낮으로 두 배의 길을 달려 길을 재촉한다는 뜻이다. 초벌의 '배를 띄워'는 ᄇᆡ를 배(船)로 오해한 오역이다.

360. '황쇄 족쇄'는 項鎖足鎖(항쇄족쇄)로,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차꼬를 가리킨다.

361. '함거'는 檻車로 죄인을 호송하는 죄수 호송용 수레다. '압영'은 押領(압령)으로 죄인을 감시하며 호송함을 뜻한다.

362. '기리 머여'는 '거리를 메워'로, 백성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구경했다는 뜻이다. 초벌의 '잡으러 오는 듯'은 '잡아옴을 듣고(줍아오믈 듯고)'를 오해한 것이다.

363. '녀돏 길동'은 '여덟 길동', 즉 여덟 명의 길동이다. 길동이 분신술로 만들어 낸 가짜 길동들로, 초벌의 '여덟 명의 관리'는 오역. 이어지는 '져의 셔로 닷토아'(저희가 서로 다투어)도 이 여덟 길동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다.

364. '망지쇼죠'는 罔知所措(망지소조)로 어쩔 줄 모른다는 뜻이며, '망연자실'이 아니다.

365. '친국'은 親鞫으로, 임금이 죄인을 친히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366. '홍모'의 '모'는 한자 某(아무개)로, 작가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관용 표기이므로 '홍 공'으로 옮김.

367. '샹'은 上(임금)으로, 초벌의 '상급자'는 오역임.

368. '지자는 막여부라'는 한자 성어 知子莫如父로, '자식을 아는 데는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는 뜻이라 그대로 옮김.

369. '경(卿)'은 임금이 신하(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 '경'으로 옮김. '여덟'은 길동이 만들어 낸 여덟 명의 분신을 가리킴.

370. '돈슈쳥죄'는 頓首請罪로, 머리를 조아려(돈수) 죄를 청한다(청죄)는 뜻이다. 초벌의 '돈수청에게'는 사람 이름으로 본 오역이다.

371. '홍공'의 '공(公)'은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로,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372. '신의 쳔싱'에서 '신'은 한자 臣으로 임금에게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며, '쳔싱'은 賤生(천생)으로 천한 출생, 즉 첩의 자식임을 가리킨다. 초벌의 '천재(天才)'는 오역이다.

373. '일노 좃ᄎᆞ 알니로쇼이다'는 '이로 좇아 아시리이다', 곧 '이것으로(이 혈점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뜻이다. 초벌의 '일의 진행 상황'은 오역이다.

374. '지쳑'은 한자 咫尺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뜻하며, 위로는 임금이 지척에 계시고 아래로는 아비가 있다는 군신·부자의 질서를 가리킴.

375. '여덟 길동'은 길동이 도술로 만든 분신까지 합해 여덟 명이 된 것으로, 모두 똑같은 길동임. 한 명이 아니라 여덟임을 살려 옮김.

376. 'ᄎᆞ되'는 差度(차도, 병세가 나아짐)로 옮김. 초벌의 '약이 없었다'는 오역.

377. '샹'은 上(임금)이고 '홍공'은 길동의 아버지(재상)로 서로 다른 인물임.

378. '쥬왈'은 奏曰로, 신하가 임금께 아뢴다는 뜻이라 '임금께 아뢰었다'로 옮김. '반향'은 半晌(한참, 잠시).

379. '불측한 행사'의 '불측'은 不測으로 '헤아릴 수 없이 못된 짓'을 뜻하며, 초벌의 '불효'가 아님.

380. '천비 소생'은 賤婢 所生, 즉 '천한 여종의 소생'이라는 구체적 신분을 가리킴.

381. '추호불범'은 秋毫不犯으로 '가을 짐승의 가는 털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 곧 백성의 것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

382. '준민고택'은 백성의 고혈(膏)을 짜내듯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한자어.

383. '복걸'은 伏乞로 '엎드려 비옵건대'라는 상소·청원의 관용 표현.

384. '신을 잡는 관자'의 '관자(關子)'는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 공문을 뜻하며, 초벌의 '관리(사람)'가 아님. 즉 자신을 체포하라는 공문을 거두어 달라는 청.

385. '초인'은 草人, 곧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로 옮김. 여덟 명의 길동이 한꺼번에 쓰러지자 모두 가짜 허수아비였다는 장면이다.

386. '졍 길동'의 '졍'은 正으로, 가짜(허수아비)와 대비되는 '진짜 길동'을 뜻함.

387. '힝관'은 行關, 곧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관문서)을 내려보내는 것을 가리켜 '공문으로 작성해 내려보냈다'로 옮김.

388. '샹'은 上으로 임금을 가리킴.

389. 'ᄎᆞ셜'은 한자 且說로, 옛 소설에서 화제를 바꿀 때 쓰는 관용구라 '한편'으로 옮김.

390. '쵸인'은 草人(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으로, 앞서 길동이 둔갑법으로 자기 분신을 만들 때 쓴 짚인형을 가리킴. 초벌의 '조력자'는 오역.

391. '방을 붓쳐시되'의 '방'은 榜(여러 사람이 보도록 내거는 게시문)이며, '붓쳐시되'는 '붙였으되'다. 초벌의 '방을 부수어'는 오역.

392. '요신'은 妖臣(요사스러운 자)으로, 초벌의 '요새(요사이)'는 오역임.

393. '교지(敎旨)'는 임금이 관직을 내릴 때 주는 임명 사령 문서임. 길동을 병조판서로 임명하는 문서를 내리면 그가 받으러 나타나 잡힌다는 뜻.

394. '잡히리이다'는 피동형으로, '(우리가) 잡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로 옮김.

395. '졔슈'는 除授(제수)로 벼슬을 임명한다는 뜻이며, 초벌의 '맡아 처리하다'는 오역임. 즉 도적(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임.

396. '샹'은 上(임금)으로, 초벌의 '상황'은 오역임. 앞서 올라온 말을 임금이 옳게 여겼다는 뜻임.

397. '경상감ᄉᆞ'는 경상감사(경상도 관찰사)로, 경상도 지방을 다스리던 최고 지방관임.

398. '엄지'는 한자 嚴旨(임금의 엄한 명령)로, 길동을 잡으라는 어명을 가리킴. 초벌의 '엄한 모습'은 오역.

399. '황공숑율'은 惶恐悚慄(매우 황송하고 두려워 떪)을 표음으로 적은 것.

400. '공즁'은 空中(공중)이며, 초벌의 '관직(을 받으러)'은 오역.

401. '쇼졔'는 小弟로, 아우가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라 '이 아우'로 옮김. 초벌의 '소인'은 오역임.

402. '형장(兄丈)'은 형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형님'으로 옮김.

403. '경사(京師)'는 도성, 곧 서울을 가리킴.

404. '감ᄉᆡ'는 監司(감사), 곧 한 도의 으뜸 벼슬인 관찰사를 가리킴.

405. '집슈유쳬'는 執手流涕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 표음만으로는 사람 이름처럼 보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임.

406. '무거한'은 한자어 無據(터무니없고 분별없음)로, '근거 없이 무모한·분별없는'의 뜻이라 '분별없는'으로 옮김.

407. '동긔'는 同氣(같은 기운에서 난 형제)로 '한 핏줄의 형제'로 옮김. '부형(父兄)'은 아버지와 형을 함께 이르는 말.

408. '애돏지'는 '애달프지(슬프고 안타깝다)'로, 초벌의 '예의에 어긋나다'는 오역임.

409. '함거(檻車)'는 죄인을 호송하는 데 쓰던, 사방을 막은 수레로, 초벌의 '함경도'는 오역임.

410. '홍졈'은 紅點(붉은 점)으로 옮김.

411. '장교 슈십'은 '장교 수십 명'으로, 초벌의 '열 명'은 오역임.

412. '함게 씌어져'의 '함게'는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인 함거(檻車)로, 초벌의 '함께'(같이)가 아니라 '함거가 부서져'로 옮김.

413. '표연'은 飄然으로 가볍게 날아오르는 모양을 뜻함.

414. '상달'은 上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임금)에게 사정을 아뢰어 올리는 것을 말함.

415. '졔신'은 諸臣(여러 신하), '쥬왈'은 奏曰(임금에게 아뢰어 말하다)로 복원해 옮김.

416. '샤은'은 謝恩(임금이 내린 벼슬·은혜에 감사하여 대궐에 나아가 인사하는 일, 사은숙배)로, 초벌의 '은퇴'는 오역임. 즉 병조판서를 제수하면 길동이 감사 인사를 하러 직접 나타날 것이라는 뜻임.

417. 'ᄉᆞ문'은 四門(사대문), 곧 도성의 네 대문으로, 초벌의 '문관을 뽑는 방'은 오역임. 방을 사대문에 붙여 널리 알렸다는 뜻.

418. '병죠판셔'는 兵曹判書로, 군사를 관장하는 병조의 으뜸 벼슬임.

419. '셔씌'는 犀帶(서대), 무소뿔로 장식한 높은 관원의 띠로 보아 '서대'로 옮김.

420. '쵸헌'은 軺軒(초헌), 종이품 이상 높은 벼슬아치가 타던 외바퀴 수레임.

421. '완연이 드러오며'는 大路上으로 '완연히(또렷하게) 들어오며'의 뜻으로, 초벌의 '향하는 모습이 드러나며'는 오역임.

422. '샤은'은 한자 謝恩으로, 임금에게서 받은 은혜(벼슬·교지 등)에 감사를 올리는 것을 뜻함. 초벌의 '은혜를 베풀러'와 방향이 반대이므로 '사은하러(감사하러)'로 바로잡음.

423. '병죠 하쇽'은 兵曹下屬으로, 병조에 딸린 하급 관리들을 가리킴.

424. '빅관'은 百官으로, 조정의 모든 관리를 뜻함.

425. 'ᄉᆞ은'은 謝恩(사은)으로, 임금의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이다. 초벌의 '새벽'은 오역.

426. '도부슈'는 刀斧手(도부수)로, 칼과 도끼를 든 군사를 가리킨다. '도둑의 복장'이 아니다.

427. '일시의'는 一時에로 '한꺼번에·동시에'의 뜻이다.

428. '슉비'는 肅拜(숙배)로, 임금에게 공손히 절하는 것이다. 초벌의 '수색(搜索)'은 오역.

429. '쥬왈'은 奏曰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어 말한다는 뜻이다.

430. '영결 젼하'의 '영결'은 永訣(영원히 헤어짐)로, 전하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표현이라 '전하와 영원히 이별하옵니다'로 옮김.

431. '복망'은 伏望(엎드려 바람), '셩샹'은 聖上(임금)으로, 신하가 임금께 간청하는 관용 표현임.

432. '샹'은 上(임금)으로, '상전'이 아니라 임금을 가리킴.

433. '몸을 공중의 소소와'의 '소소와'는 '솟구쳐'(소소다=솟구치다)로, 인명이 아님. 초벌의 '소소와 구름 사이로'는 오역.

434. '작폐'는 한자 作弊로 '폐를 끼침, 소란을 일으킴'의 뜻이라 '폐를 끼칠 일'로 옮김. 초벌의 '도모할 방법'은 오역.

435. '슈상'은 殊常(보통과 다름, 수상함)이며 首相(재상·수상)이 아님.

436. '죡히 념녀 업슬이라'는 '족히 염려할 것이 없으리라'로, 초벌의 '후회함이 없으리라'는 오역.

437. 'ᄉᆞ문'은 赦文(사문), 곧 죄를 사면한다는 임금의 명령서로, 길동을 잡으려던 체포령을 거두는 맥락에서 쓰임.

438. '공ᄉᆡ'는 公事(공사), 곧 관청의 공무·공문을 뜻하며, 여기서는 앞서 내렸던 길동 체포 관련 공문을 가리킴.

439. '각셜'은 한자 却說로, 옛이야기에서 화제를 돌릴 때 쓰는 관용구라 '한편'으로 옮김.

440. '졔젹'은 諸賊(여러 도적)으로, 길동의 부하가 된 도적 무리를 가리킴.

441. '츄립 말고'의 '츄립'은 出入(출입)으로,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는 뜻이라 '함부로 나가지 말고'로 옮김.

442. '몸을 소소와'의 '소소다'는 솟구치다의 뜻으로 '몸을 솟구쳐'로 옮김. 초벌의 '소주와 남경으로'는 오역.

443. '옥야'는 沃野(기름진 들)로, 초벌의 '옥처럼 아름다우며'는 오역.

444. 'ᄂᆡ 임의 됴션을 하직ᄒᆞ여스니'에서 '됴션'은 朝鮮(조선), '임의'는 '이미'로, '내 이미 조선을 하직하였으니'로 옮김. 초벌의 '임금을 떠나'는 오역.

445. '표연이 본 곳의 도라와 졔인다려 일너 왈'은 '표연히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여러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의 뜻. 초벌의 '도읍과 제도를 살펴보며'는 오역.

446. '졍죠'는 正租로, 나라에 바치는 조세 곡식(쌀)을 뜻함. 초벌의 '조정의 ~ 석'은 오역임.

447. '모월 모일'의 '모(某)'는 '아무'라는 뜻으로, 특정 날짜를 밝히지 않은 관용 표현이라 '아무 달 아무 날'로 옮김.

448. '구득(求得)'은 '구하여 얻다'의 뜻임.

449. '츄구월 망간'은 秋九月 望間(가을 9월 보름께)로, 초벌의 '추석'은 오역임.

450. '옥져'는 玉笛(옥피리)로, '옥 같은 소리'가 아님. 공중에서 옥피리 소리가 울린 것임.

451. '복지'는 伏地(땅에 엎드림)로, 절을 올린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린 것임.

452. '각설'은 却說로, 이야기의 화제를 돌릴 때 쓰는 고전소설 관용구임.

453. '션동'은 仙童(신선의 시중을 드는 아이, 신선 세계의 동자)으로, 초벌의 '길동'은 오역임. 화자가 상대를 인간이 아닌 선계의 존재로 보고 부르는 호칭.

454. '강굴'은 降屈(降, 몸을 굽혀 내려옴)로 보아 '인간 세상에 내려옴'으로 옮김. 초벌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근거 없는 의역임.

455. '신(臣)'은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을 낮춰 일컫는 말이라 '소인'이 아니라 '신'으로 옮김.

456. '젼임'은 前任(전임), 즉 이전에 그 자리를 지냈음을 뜻하므로 초벌의 '임명된'은 오역임. 길동이 앞서 병조판서를 지냈음을 가리킴.

457. '천비 소생'은 賤婢所生으로, 천한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라는 뜻이다(길동의 서출 신분).

458. '옥당(玉堂)'은 홍문관(弘文館)을 가리키는 청요직(淸要職)으로, 서얼은 진출이 막혀 있었다. '참예'는 參預(참여)이다.

459. '션쳔'은 宣薦으로 무관을 천거·등용하는 제도다. 초벌의 '선천적 재능'은 오역으로, 무과에 급제해도 서얼이라 천거에서 막힌다는 뜻이다.

460. '정조(正租) 일천 석'은 세곡으로 쓰는 벼 천 석을 말한다. 초벌의 '조정의 일천 석'(朝廷)은 오역이다.

461. '한없는 길'은 원문 'ᄒᆞᆫ업슨 길'로 끝없이 떠나는 길을 뜻한다. 초벌의 '한직(閑職)을 찾아'는 오역이다.

462. '젼일'은 前日(이전, 지난날)이며 특정한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의 뜻임

463. '월하'는 月下(달빛 아래)로 옮김

464. '샹'은 上으로 임금을 가리킨다. 초벌의 '상사(上司)'가 아니라 군주를 뜻하므로 '임금'으로 옮김.

465. '가로샤ᄃᆡ'는 임금에게 쓰는 높임말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로, 여기서는 임금이 길동에게 말하는 장면임.

466. '범인이 아니물'의 '범인'은 凡人(보통 사람)으로, 죄인을 뜻하는 犯人이 아님.

467. '션혜당상'은 선혜청(宣惠廳)의 당상관으로 옮김. 선혜청은 조선시대 대동미·공물을 관장하던 관청이고, 당상관은 그 고위 관원임.

468. '졍죠 일쳔 셕'은 正租 一千石(벼 천 섬)으로, 곡식 단위 石(섬)임. 초벌의 '정예 병사 천 명'은 오역.

469. '젼지'는 傳旨로, 임금이 내리는 명령을 뜻함.

470. '졍죠 쳔 셕'은 正租 千石(정조 천 석)으로, 조세로 거두어들이는 벼 천 석을 뜻함. 초벌의 '높은 벼슬'은 오역.

471. '텬은'은 天恩(천은), 곧 임금의 은혜를 가리킴.

472. '언유'는 緣由(연유), 곧 '까닭·사연'으로 옮김.

473. '상달(上達)'은 윗사람, 여기서는 임금께 아뢰어 올리는 것.

474. '샹이 쇼왈'에서 '샹'은 임금(上), '쇼왈'은 笑曰(웃으며 말하다)이다. 초벌의 '상의하기를'은 오역.

475. '졔게 ᄉᆞ급ᄒᆞᆫ 거시라'에서 'ᄉᆞ급'은 私給(스스로 해냄)이 아니라, 문맥상 길동이 제힘으로 감당·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으로 옮김.

476. '각셜'은 却說로, 옛 소설에서 화제를 돌릴 때 쓰는 '한편'에 해당함.

477. '졍죠 일쳔 셕'의 '졍죠'는 正租(벼·곡식)로, 초벌의 '정교한 기술'은 오역임. 곡식 일천 석으로 옮김.

478. '무고'는 武庫(무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초벌의 '무고를 밝혀내고'는 오역임.

479. '졔도셤'은 '제도(諸島)라는 섬'으로, 길동이 새 근거지로 삼은 섬 이름임.

480.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으로, 초벌의 '제 사람'이 아니라 길동이 거느린 무리 전체를 가리킴.

481. '살쵹의 바를 약'은 화살촉(살촉)에 바르는 약, 즉 화살에 바르는 독약을 뜻함.

482. '여 등'은 汝等(너희들)을 한글 표음으로 적은 것.

483. '익구'는 隘口(애구), 산속의 좁은 길목·요충지를 가리키는 한자어임. '악구'가 아님.

484. '슈일만의'는 數日(여러 날)로, '하루 만에'가 아니라 '며칠 만에'임.

485. '부뫼'는 父母(부모), '부뷔'는 夫婦(부부)임. 초벌은 '백룡이 부인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로 옮겼으나 원문은 부부가 함께 슬퍼하며 딸을 찾은 것임.

486. '호련'은 忽然(갑자기)임.

487. 'ᄉᆞ회'는 사회(社會)가 아니라 사위(婿)이며, '사위로 삼으리라'는 딸을 찾아준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뜻임. 초벌의 '사회를 섬기게'는 오역.

488. '조화(造化)'는 신통한 술법을 부린다는 뜻으로 옮김.

489. 원문 '즘싱의 무리'는 '짐승의 무리'로, 초벌의 '요괴'와 달리 짐승(동물) 무리임.

490. '궁시(弓矢)'를 '활과 화살'로 옮김. 초벌은 이를 '챙겨 메고'로 보았으나 원문 '감쵸아 업시ᄒᆞ고'는 '감추어 치워 두고'의 뜻임.

491. '의슐'은 醫術(의술)로, 초벌의 '의리'는 오역임.

492. '션약'은 仙藥(신선의 약·영약)으로, 초벌의 '신선'은 오역임.

493. '작야'는 昨夜(어젯밤)로, 초벌의 '밤마다'는 오역임.

494. '그대 날을 위하여'의 '날'은 '나를'의 준말이라 '그대가 나를 위하여'로 옮김. 초벌의 '그날을 위해'는 오역임.

495. '천살'은 天殺(하늘이 내린 죽음·재앙)로 봄.

496. '주왕'은 主王으로 앞의 '대왕'을 가리키며, '한가지로'는 '함께'의 뜻. 초벌의 '도를 닦는 이가 상처를 보살펴' 부분은 원문에 없는 오역임.

497. '선약'은 仙藥(신선의 약)임.

498. '작야(昨夜)'는 어젯밤이라는 뜻으로, '내 살의 상헌 놈'은 어젯밤 길동의 화살(살)에 맞아 상처 입은 놈이라는 뜻이라 그렇게 옮김.

499. '화각(畵閣)'은 단청을 칠한 화려한 누각, '장여(壯麗)'는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뜻, '좌탑(座榻)'은 앉거나 눕는 평상을 가리킴.

500. '길동의 니르물'은 '길동이 이른 것(온 것)'으로, 초벌의 '길동의 말을 보고'는 오역임.

501. '명의를 지시하여'의 '명의'는 名醫(이름난 의원)로, 초벌의 '명을 내려'는 오역임. 하늘이 명의를 보내 환자를 살린다는 뜻임.

502. '살'은 煞(사람을 해치는 나쁜 기운)로 보아 옮김.

503. '재죠를 앗기지 말나'는 '재주를 아끼지 말라'로, 가진 의술을 다 발휘해 달라는 부탁임. 초벌의 '재주를 잃지 말아야'는 오역임.

504. '사사하고'는 謝辭하고로, 감사·사례의 인사를 드린다는 뜻이라 '사례하고'로 옮김.

505. '속여 이르되'는 '거짓으로 말하기를'의 뜻으로, 초벌의 '속삭이며'(귓속말)는 오역임.

506. '즁상'은 重傷(중상), 곧 무거운 상처를 뜻함.

507. 'ᄂᆡ치헐 약'은 內治(내치)할 약으로, 상처를 씻는 약이 아니라 몸속을 다스리는 먹는 약을 뜻함. 뒤의 '바를 약'(外治, 바르는 약)과 짝을 이룸.

508. '쾌ᄎᆞ'는 快差(쾌차), 곧 병이 완전히 나음을 뜻함.

509. '고지 듯고'는 '고개를 들어'가 아니라 '(그) 말을 곧이듣고/그대로 믿고'의 뜻이며, '대희(大喜)하는지라'는 '크게 기뻐하다'로, 초벌의 '대답하다'는 오역임.

510. '초시'는 과거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여기서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므로 그대로 옮김.

511. '대희(大喜)'는 '크게 기뻐함'으로, 요괴들이 약을 받고 기뻐한 것이다. 초벌의 '한데 모아'는 오역.

512. '식경(食頃)'은 밥 한 끼 먹을 동안, 곧 잠깐의 시간을 뜻한다.

513. '지르려'의 '지르다'는 '찌르다(刺)'의 옛말로, 칼로 찌르려 한다는 뜻이다.

514. '풍백(風伯)'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길동이 도술로 큰 바람을 일으키려 그를 부른 것이다.

515. '젹실'은 賊室로 보아 요괴들의 소굴(거처)로 옮겼다.

516. '씨업시'는 '씨도 없이', 즉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라는 뜻이다.

517. '쇼년 녀ᄌᆡ'는 少年 女子로, 나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

518. '텬힝'은 天幸(천행), 곧 하늘이 내린 다행이라는 뜻으로 '천만다행'으로 옮김.

519. '잔명(殘命)'은 겨우 붙어 있는 남은 목숨을 뜻함.

520. 'ᄯᆞᆯ 일흔 ᄉᆞᄅᆞᆷ'은 '딸을 잃은 사람'이며, '일흔'은 숫자 70이 아니고 '말(言)'을 들은 것이지 '말(馬)'이 아님.

521. 'ᄒᆞᆫ나흔…ᄒᆞᆫ아흔…'은 '하나는…다른 하나는…'으로, 길동이 데려온 여인이 두 명임. 뒤에 백소저·조소저 두 아내로 이어짐.

522. 'ᄉᆞ회를 삼으니'의 '사회'는 사위(婿)를 뜻하며, 손님 접대가 아님.

523. '경국지색(傾國之色)'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빼어난 미인을 이르는 말.

524. '여취여셩'은 如醉如醒(취한 듯 깬 듯)으로, 너무 기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

525. '견권지정(繾綣之情)'은 마음이 깊이 얽혀 떨어지기 어려운 도타운 정을 뜻함.

526. '쳐쇼'는 處所(거처)로, 부인을 맞이한다는 뜻이 아니라 머물 곳을 정한다는 의미임.

527. '텬문을 살피고'의 '텬문'은 天文(별자리·하늘의 천체 현상)으로, '하늘의 문'이 아님. 천문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하는 대목임.

528. '빅쇼졔 문왈'은 白小姐 問曰, 즉 '백 소저(길동의 부인)가 물었다'로, '백성들이 문을 두드렸다'는 오역이 아님.

529. '망간'은 望間(보름께)으로 칠월 보름 무렵을 가리킴.

530. '졔도'는 諸島(여러 섬)로, 길동이 차지한 섬을 가리키는 지명임.

531. '쳔쳡 쇼싱'은 賤妾 所生으로, 천한 첩이 낳은 자식, 곧 서얼을 뜻해 '천한 첩에게서 난 자식'으로 옮김.

532. '춤녀'는 參與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떳떳이 끼어 행세함을 뜻하는 맥락으로, 서자라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의미로 옮김.

533. '텬샹 셩두(天上星斗)'와 '건상(乾象)'은 모두 하늘의 별과 천체의 형상으로, 옛 사람이 천문을 보아 길흉을 점치던 것을 가리킴.

534. '일장 대지(一場大地)'의 '대지'는 큰 깃발(大旗)이 아니라 명당, 곧 좋은 묏자리를 뜻함. 초벌의 '커다란 깃발'은 오역.

535. '국릉(國陵)'은 임금의 무덤인 왕릉. 석물과 격식을 왕릉에 가깝게 갖추라는 뜻이며, '나라의 역사를 세운다'는 초벌은 오역.

536. '서강(西江)'은 서해안이 아니라 한강 하류의 나루터(서울 서강). 조선으로 돌아갈 배를 대어 둘 장소.

537. '지모(智謀)'는 솜씨가 아니라 지혜와 꾀를 뜻함.

538. '대사(大師)'는 덕 높은 큰스님으로, 길동이 승려로 변장한 것.

539. '백쇼졔'는 백룡(白龍)의 딸이자 길동의 부인인 백 소저로 보아 옮김.

540. '홍판셰'의 '공(公)'에 해당하는 인물은 길동의 아버지인 재상이며 임금이 아님. '판셰'는 판서(判書) 벼슬을 가리킴.

541. '년만 팔슌'은 '나이가 어느덧 팔순(八旬, 80세)'이라는 뜻으로, 초벌의 '일년 만에'는 오역임.

542. '무한'은 無恨(한이 없음)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임.

543. '사생'은 死生(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이며 초벌의 '속마음'은 오역임.

544. '젹셔'는 嫡庶(적자와 서자)로, 적서를 분별치 말라는 것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임종의 당부임.

545. '병이 진ᄒᆞ니'의 '진'은 한자 盡(다하다)으로, 병이 다해 곧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라 '세상을 떠나니'로 옮김.

546. '쵸죵 범졀'은 初終凡節로, 초상(죽음 직후부터 장례까지)을 치르는 온갖 절차를 뜻함.

547. '쟝ᄉᆞ 지닐 산지'는 葬事 지낼 山地로, 장사 지낼 묏자리를 뜻함. 초벌이 '장사(丈嗣)'와 '병세'로 옮긴 것은 오역.

548. '즁'은 僧(승), 곧 스님이다. 초벌의 '어떤 사람'은 오역이다.

549. '영위'는 靈位로, 죽은 이의 신주를 모신 자리(영전)를 뜻한다. '영의정'이 아니다.

550. '죠문'은 弔問(조문)으로, 상가에 조의를 표하는 것이다. '문을 두드린다'가 아니다.

551. '고히 여겨'는 怪異하게 여겨, 즉 '이상하게 여겨'의 뜻으로, 초벌의 '고이(정성껏) 여겨'는 오역임.

552. '그 즁'의 '즁'은 僧(승), 곧 스님(중)을 가리킴. 초벌의 '그중에서'는 오역임.

553. '방셩대곡'은 放聲大哭으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을 뜻함.

554.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이며, '셔로 니르되'는 '서로 말하기를'임.

555. '즁'은 한자 僧(승려), 즉 중을 가리킨다. 초벌의 '서로 통하는 사이'는 오역임.

556. '이통'은 哀痛(애통, 몹시 슬퍼함)으로, 초벌의 '서로 통함'이 아님.

557. '샹공'은 相公(상공)으로 재상·귀인을 높이는 말이며 여기서는 길동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젼일'은 前日(이전에)임.

558. '여막(廬幕)'은 상주가 묘소나 빈소 옆에 지어 거처하는 초막을 가리킴.

559. '상인(喪人)'은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 곧 상주를 뜻함.

560. '셔졔'는 書齊(서재)로, 함께 글을 배우던 서당의 동무를 가리킴.

561. '젼일'은 前日(전일), 곧 '예전에·지난날'이라는 뜻이라 '예전에'로 옮김.

562. '님죵의 유연'은 臨終(임종)의 遺言(유언)으로, 초벌의 '임금님의 은혜'는 오역임.

563. '인ᄌᆞ'는 人子(자식 된 사람)로, 초벌의 '인자함(仁慈)'은 오역임.

564. '부공'은 父公으로 길동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임.

565. '그 숀을 닛글고'의 '숀'은 손(手)으로, '그의 손을 이끌고'의 뜻이다. 초벌의 '모습을 보고'는 오역.

566. '인ᄉᆞ를 찰혀'는 人事를 차리다, 곧 '정신을 차리다'의 뜻으로 옮김.

567. '기셰'는 棄世(세상을 떠남, 별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이다. 초벌의 '기별을 보내 부르시니'는 오역이다.

568. '삭발위승'은 削髮爲僧(머리를 깎고 승려가 됨), '지술'은 地術(풍수·도술)을 가리킨다.

569. '쟉난'은 作亂(난을 일으킴)으로, 가족이 화를 입을까 염려했다는 문맥에 비추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570. '지슐'은 地術(묏자리를 보는 풍수지리 술법)으로, 초벌의 '재주'가 아님. 뒤에 '장사 지낼 산지를 얻으라'는 문맥과 맞물려 풍수를 가리킴.

571. '쟝ᄉᆞ 지닐 산지'는 葬事(장례)를 지낼 山地(묏자리)로, 초벌의 '장사가 되어'(상인/장사꾼)는 오역임.

572. '부공(父公)'은 아버님을 높여 이르는 말.

573. '대지(大地)'는 풍수에서 좋은 묏자리, 즉 명당을 뜻하므로 '명당자리'로 옮김.

574. '행상(行喪)'은 상여를 메고 가서 장사를 치르는 일을 뜻하므로 '모셔다 장사 지내기'로 옮김.

575. '대희(ᄃᆡ희)'는 大喜로 '크게 기뻐함'이라는 뜻이며, 초벌의 '대희가'처럼 인명이 아니다.

576. '좌랑'은 佐郎으로 조선 시대 육조의 정육품 관직이다.

577. '의형'은 길동의 형(경판본에서 이름이 仁衡인 좌랑)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형'으로 옮겼다.

578. '길지(吉地)'는 풍수에서 좋은 묏자리(명당)를 뜻하므로 '좋은 묏자리'로 옮김.

579. '원노(遠路)'는 '먼 길'이며, 초벌의 '원망하는 마음'은 오역임.

580. '헌졔'는 '현제(賢弟)'로,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 '형제'로 옮김.

581. '쇼졔'는 小弟로, 말하는 이가 자신을 '아우'로 낮춰 부르는 자칭이다. 초벌의 '소제(작은 제사)'는 오역이라 '제가'로 옮김.

582. '상구'는 喪柩(시신을 넣은 관, 영구)로, '발행(發行)'은 관을 장지로 옮겨 가는 것이라 '영구를 옮기다'로 옮김.

583. '안쟝헐 틱일가지'는 安葬할 擇日까지로, 매장할 날짜를 골라 두기까지 했다는 뜻.

584. '임의'는 이미(已)로, 초벌의 '임의로(마음대로)'가 아니다. '산역(山役)'은 묘를 만드는 일.

585. '상구(喪柩)'는 시신을 넣은 관(영구)으로, 길동이 아버지의 관을 모시고 가는 장면임.

586. 'ᄲᆞ르기 살갓튼지라'의 '살'은 화살(矢)을 가리켜 '빠르기가 화살 같다'로 옮김. 초벌의 '살아서 움직이는'은 오역.

587. '슈십 션쳑(數十船隻)'은 배 수십 척이라는 뜻으로, 사람 십여 명을 태운 것이 아니라 배 수십 척을 띄운 것임.

588. '의ᄋᆞ'는 의아(疑訝, 의심스러워 이상하게 여김)로, '의로운'이라는 뜻이 아님.

589. '인형'은 길동의 형 홍인형의 이름임.

590. '쇼졔'는 小弟로, 자신을 낮춰 부르는 1인칭 호칭이라 '소제'로 옮김.

591. '옥야쳔니'는 沃野千里로 '기름진 들판이 천 리에 펼쳐짐', '창곡'은 倉穀(곳간의 곡식)을 가리킴.

592. '푼죡'은 豊足(풍족)으로, 표음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 '넉넉하다'로 옮김. '긔구'는 器具로 살림살이를 뜻함.

593. '깃도이 단니나'의 '깃도이'는 표기가 불분명하나 걸식하며 떠도는 처지를 낮춰 말하는 문맥이라 '빌어먹으며 떠돌아다니다'로 옮김.

594. '치산범졀이 국능갓치'는 治山凡節이 國陵같이의 뜻으로, '치산범절'은 무덤을 손질하고 가꾸는 모든 격식, '국릉'은 나라의 능(왕릉)을 가리킨다. 초벌의 '험한 지형·국경 지대'는 오역임.

595. '졍ᄒᆞᆫ 곳을 가로쳐ᄂᆞᆯ'은 定한 곳을 가리키거늘의 뜻으로, '정해 둔 묏자리를 가리키다'이다. 초벌의 '정상을 가로질러'는 오역임.

596. '심이'는 심히(甚, 매우)이며, '인형'은 길동의 형 홍인형(人名)이다.

597. '승의 복식'은 '상복(喪服) 차림'을 뜻하며, '최복(衰服)'은 거친 베로 지은 상복임. 하관을 마친 뒤 정식 상복으로 고쳐 입은 것임.

598. '됴시'는 조씨(趙氏), '백시'는 백씨(白氏)로 길동의 두 부인이며, 초벌의 '도사'는 오역임.

599. '죤고(尊姑)'는 시어머니, '슉슉(叔叔)'은 시숙(남편의 형제)을 가리킴.

600. '친산'은 親山으로 부모의 묘소를 뜻하며, '니곳의 뫼셔시니'는 '이곳에 (묘를) 모셨으니'로 옮김.

601. '쟝상'은 將相(장수와 재상)으로, 자손 대대로 높은 벼슬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 초벌의 '장터'는 오역.

602. '야야'는 爺爺(아버지), '향화(香火)'는 제사를 가리키며, '태부인'은 太夫人으로 어머니를 높여 부른 말.

603. '좌랑'은 정육품 벼슬인 좌랑(佐郞)으로, 여기서는 길동의 형 인형을 가리킴.

604. 'ᄃᆡ지'는 大地로, 풍수에서 좋은 묏자리(명당)를 뜻함.

605. '졔ᄉᆞ'는 祭터, 곧 무덤가(묘소)를 뜻함.

606. '삼상(三喪)'은 삼년상(부모의 삼년 동안의 상례)을 가리킴.

607. '병졍양죡'은 兵精糧足(군사가 정예롭고 군량이 넉넉함)으로, 초벌의 '몸이 튼튼·기운 왕성'은 오역임.

608. '금셩쳘'은 金城鐵壁(쇠로 두른 견고한 성)으로, 방비가 매우 튼튼한 요새를 뜻함.

609. '텬부지국'은 天府之國으로, 땅이 비옥하고 험준해 하늘이 내린 듯한 풍요로운 나라를 이르는 말.

610. '삼년샹'은 三年喪으로, 부모의 죽음에 삼 년 동안 치르는 상례. 길동이 아버지의 상을 마쳤음을 뜻함.

611. '션봉'은 先鋒(선봉)으로, 군대의 맨 앞에 서는 장수다. 초벌의 '왕위'는 오역.

612. '턱일 출ᄉᆞ'는 擇日 出師로, '길일을 가려 군사를 일으킴'이다. 초벌의 '태극으로 출사'는 오역.

613. '갑ᄌᆞ 츄구월'은 甲子 秋九月로 '갑자년 가을 구월'이다.

614. '죠련이 파치 못헐'의 '죠련'은 猝然(졸연), 곧 '쉽게·갑작스레'의 뜻으로 옮김.

615. '군긔 마필'은 軍器(무기)와 馬匹(말)로, 초벌의 '병사와 군사, 말과 군마'는 오역임.

616. '두리는 바'는 '두려워하는 바', 곧 걱정되는 것이라는 뜻이며, 초벌의 '둘다'는 오역임.

617. '파치 못ᄒᆞ며'의 '파'는 辦(마련함)으로, 양식을 마련하지 못함을 뜻함.

618. 'ᄐᆡ슈'는 太守(태수)로, 한 지방을 다스리던 관직임.

619. '후군쟝 마슉'의 '마슉'은 인명 馬肅으로, 후군장(後軍將) 마숙을 가리킴. 초벌의 '마술을 부려'는 오역.

620. '슈 합'은 數合으로 무예를 겨룬 횟수 몇 합을 뜻하며, 초벌의 '수적 열세'는 오역. 마숙은 실제로 진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패한 척해 현충을 유인한 것임.

621. 오방신장(五方神將)은 방위를 지키는 신장으로, 청제·적제·백제·흑제장군은 각각 동·남·서·북을 맡은 장군임.

622. '네 죽기를 앗기거든'의 '앗기다'는 '아끼다'(소중히 여겨 잃기 싫어하다)로, '죽음을 아까워하거든' 곧 '죽기 싫거든'의 뜻이다. 초벌의 '목숨을 앗아가려거든'(앗다)은 오역이다.

623. '텬명'은 天命(하늘의 명, 하늘이 정한 뜻)이다.

624. '임의'는 '이미'(已矣)로, 임금(임금님)이 아님. 초벌의 '임금님께 붙잡혀'는 오역임.

625. '쇼쟝'은 小將으로, 장수가 자신을 낮춰 부르는 1인칭 호칭이라 '소장'으로 옮김.

626. '잔명(殘命)'은 거의 다한 남은 목숨을 뜻함.

627. '그 믄 거슬 글너'에서 '믄 것'은 묶은 것(결박), '글너'는 '끌러(풀어)'로, 항복한 태수를 묶었던 포박을 풀어 준다는 뜻. 초벌의 '매서운 기세로 글을 써 올리게'는 오역임.

628. '격셔(檄書)'는 적이나 군사를 상대로 보내는 공식 격문(선전포고문)으로, 여기서는 율도왕에게 보내는 도전·항복 권유의 글임.

629. '빌걸'은 伐桀(걸왕을 침), '빌쥬'는 伐紂(주왕을 침)로 복원함. 초벌의 '빌어 주시고'는 오역이다. 성탕(상나라 탕왕)이 폭군 걸왕을, 무왕(주나라 무왕)이 폭군 주왕을 쳐서 천명에 따라 왕조를 바꾼 고사로, 길동이 자신의 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든 것이다.

630. '쓰호고져'는 '싸우고자'이며, 초벌의 '쓰고자'는 오역이다.

631. '철봉(鐵峰)'은 율도국의 관문이 되는 지명이다.

632. '남필'은 한자어 覽畢로 '보기를 마침', 즉 '(글·편지를) 다 읽고 나서'라는 뜻이며, 초벌의 '남편'은 오역임.

633. '대경'은 大驚(크게 놀람)이고 '왈'은 曰(말하다)임.

634. '쳘봉'은 천명(天命)이 아니라 鐵峯(철봉)으로, 율도국이 의지하던 요충지(성·산성)의 이름임. 길동이 율도국을 칠 때 먼저 빼앗는 곳이라 문맥상 지명으로 옮김.

635. '젹셰'는 敵勢(적의 기세·세력)로, '적절한 때'가 아님.

636. '우양'은 牛羊(소와 양), '호궤'는 군사를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 위로하는 犒饋를 뜻하므로, 초벌의 '군사를 잡아 제압'은 오역임.

637. '안무'는 安撫로 백성을 어루만져 위로하고 안정시킨다는 뜻임.

638. '만죠 빅관'은 滿朝百官(만조백관), 곧 조정에 가득한 모든 관리를 뜻하며 '만 명의 백관'이 아님.

639. '사급'은 賜給으로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함을 뜻함. 궁궐을 지어 내려준다는 의미로 옮김.

640. '시신'은 侍臣(곁에서 모시는 신하·시종)이며 屍身(시체)이 아님. '환쟈'는 宦者(환관)임.

641. '졔도'는 諸道, 즉 율도국의 여러 지방을 가리킴.

642. '추존(追尊)'은 죽은 이에게 사후에 왕·왕비 등의 존호를 올리는 일임.

643. '셩탕'은 殷나라를 세운 성군 成湯(성탕)을 가리킴. 어진 임금의 대명사라 '왕의 덕택이 성탕에 비길 만하다'로 옮김.

644. '태평연(太平宴)'은 태평성대를 기리며 베푸는 잔치를 뜻함. 초벌의 '태평성대를 누리며'는 오역.

645. '셕ᄉᆞ'는 昔事(석사), 즉 '지난 일'을 뜻함. 초벌의 '후사(後嗣)'는 오역.

646. '쇼ᄌᆡ'는 小子(소자)로, 부모 등 윗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말이라 '소자'로 옮김.

647. 'ᄌᆞ긱'은 刺客(자객)이며, 초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역임.

648. '집의 이실 졔'는 '집에 있을 때'로, 초벌의 '집을 이사할 때'(이실→이사)는 오역임.

649. '일너 왈'은 '일러 말하기를'의 뜻으로, 초벌의 '일어나'는 오역이며 백용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임.

650. 여기서 '과인'은 율도국 왕이 된 길동이 왕위에 올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임금의 자칭 寡人이 맞다. 일반적으로 '과인'은 過人(남보다 뛰어남)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대목은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라 문맥상 寡人이다.

651. '정조 일천 석'의 '정조'는 正租(찧지 않은 벼·곡식)로, 임금이 하사한 곡식 1,000석을 뜻한다. 초벌의 '조정의 일천 석'은 오역이다.

652. '수천 리 원로'는 數千里 遠路(수천 리에 이르는 먼 길)로, 사례하러 조선까지 다녀오는 여정을 가리킨다. 초벌의 '수천 명의 노비에게 물건을 바치라'는 표음을 잘못 푼 오역이다.

653. '졍죠'는 正租(찧지 않은 벼)로, 곡식 일천 석을 뜻함. 초벌의 '정교한'은 오역임.

654. '슈십 명'은 數十名(수십 명)이며, 초벌의 '열 명'은 오역임.

655. '봉명 퇴죠'는 奉命退朝로, 임금의 명을 받들고 조정에서 물러난다는 뜻임.

656. '표문(表文)'은 신하가 임금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말함.

657. '각셜'은 한자 却說로, 옛 소설에서 화제를 돌릴 때 쓰는 '한편' 정도의 상투구임.

658. '졍죠'는 正租(정조), 찧지 않은 벼를 뜻하는 곡식 단위이며, 초벌의 '정교'는 오역임.

659. '표문'은 表文으로, 신하나 제후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임. 여기서는 율도왕(길동)이 조선 임금에게 올린 글임.

660. '샹'은 上(임금)으로, 정조를 내려준 조선 임금을 가리키며 율도왕이 아님.

661. '정조 천 석'은 正租千石으로, 벼슬아치 녹봉으로 받는 쌀 천 석을 뜻한다. '천석꾼'이나 재물을 가진 자가 아니다. 초벌의 '시기하시니'는 오역이며, '시기시며'는 벼슬을 '시키시며(제수하시며)'의 뜻이다.

662. '환상(還償)'은 받았던 정조 천 석을 도로 돌려드린다는 뜻이다. 초벌의 '갈망'은 오역이다.

663. '신병이 되오니'는 아비가 천한 자식(길동) 때문에 身病(몸의 병)을 얻었다는 뜻으로, 초벌처럼 아비가 길동을 멀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664. '쳔비 쇼생'은 賤婢所生, 곧 천한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는 뜻이다.

665. '율왕'은 율도국(栗島國)의 왕, 곧 길동 자신을 가리킴.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된 뒤 조선 임금에게 표문을 올린 상황임.

666. '셔찰'은 書札(편지)이며, 초벌의 '죄'는 오역임.

667. '예궐(詣闕)'은 대궐에 나아감, '복지(伏地)'는 땅에 엎드림, '쥬왈(奏曰)'은 임금께 아뢰어 말함을 뜻함.

668. '아오(ᄋᆞ오)'는 '아우(동생)'로, 초벌의 '아는'은 오역. 화자는 길동의 형이며, 임금(전하) 앞에서 자신을 '신(臣)'이라 칭하고 있다.

669. '젼히'는 전하(殿下)로 임금을 가리키며, 초벌이 '전적으로'로 옮긴 것은 오역. '셩샹'은 성상(聖上)으로 임금의 높임말.

670. '망뷔'는 망부(亡父, 돌아가신 아버지), '산쇼'는 산소(山所, 묘). '졀노 하여금'은 '길동으로 하여금 산소를 율도국 근처에 모시게 했다'는 뜻으로 보아, 초벌의 '절대로'를 바로잡아 옮김.

671. '의윤'은 依允으로, 임금이 신하의 청을 옳게 여겨 허락한다는 뜻. 초벌의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은 오역.

672. '위유사'는 慰諭使로, 백성을 위로하고 타이르기 위해 보내는 사신(임무). '졔슈'는 除授(벼슬을 내림)이다.

673. '유셔'는 諭書로,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훈유 문서. 초벌의 '유배(流配)'는 표음만 보고 잘못 옮긴 오역.

674. '탑젼 셜화'에서 탑전(榻前)은 임금의 자리 앞을 뜻하며, 설화는 그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말한다.

675. '하직 슉비'는 下直肅拜로, 임금께 작별을 고하며 공손히 절을 올리는 것.

676. '셔출'은 書札(편지)로, 초벌의 '상태'는 오역임.

677. '쇼분'은 掃墳(소분)으로 조상의 산소를 살피고 제사 지내는 일이며, '말미'는 그를 위해 얻은 휴가를 뜻함.

678. '싱의치 못ᄒᆞ다'는 生意치 못하다로 '마음먹지/엄두 내지 못하다'의 뜻이며, '죠각이 신통ᄒᆞᆫ지라'는 '기회·형편이 공교롭게 잘 들어맞는다'는 뜻임.

679. '말유치 못ᄒᆞ여'의 '말유'는 挽留(만류)로, '만류하지 못하여'의 뜻. 초벌의 '말을 준비하지 못해'는 오역.

680. '쇼분'은 掃墳(소분)으로, 경사가 있을 때 조상의 산소를 찾아 무덤을 보살피고 그 일을 아뢰는 성묘를 뜻함. 초벌의 '잔치'는 오역.

681. '호련'은 忽然(홀연)으로 '갑자기'의 뜻.

682. '율왕'은 율도국의 왕이 된 홍길동을 가리킴.

683. '지영'은 祗迎(공경히 맞이함), '위의'는 威儀(위엄 있는 거동), '백약'은 百藥(온갖 약)으로 옮김.

684. '산쇼'는 山所(산소), 곧 조상의 무덤을 뜻하므로 '아버지의 산소'로 옮김. 초벌의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하고'는 오역임.

685. '인형'은 길동의 형 이름(仁衡)으로 인물 이름이지 임금이 아님. 여기서 '왕'은 율도국 왕이 된 길동이라, '인형이 왕에게 말하기를'로 옮김. 초벌의 '임금이 다시 일어나'는 오역.

686. '슈월'은 數月(여러 달)이지 '세월'이 아님.

687. '션능'은 先陵(조상의 능)으로 보고 '선릉에 합장'으로 옮김. '졸하니'의 '졸'은 卒로 귀인의 죽음을 뜻함.

688. '우형(愚兄)'은 형이 아우 앞에서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라 '이 형'으로 옮김.

689. '기셰'는 棄世(별세·돌아가심)이며, 초벌의 '위독해지시니'는 오역이다.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이다.

690. '피ᄎᆞ 일반'은 彼此一般(피차일반)으로 '너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691. '현지'는 賢弟(현제), 곧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 '보즁'은 保重(보중)으로 '몸을 잘 돌보라'는 뜻이다.

692. '모상'은 母喪(어머니의 상)으로, 길동이 어머니의 초상을 당한 일을 가리킨다.

693. '숙배'는 肅拜로, 신하가 임금께 공손히 절하여 뵙는 것을 뜻한다.

694. '닙죠'는 入朝(입조)로, 조정에 들어와 임금을 뵙고 벼슬길에 나아감을 뜻한다.

695. '션능의 안쟝'의 '션능'은 先陵(좋은 능, 묏자리)으로 보아 '좋은 묏자리에 모셨다'로 옮김.

696. '죠셕져젼'은 朝夕奠(조석전), 즉 상중에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제사를 뜻함.

697. '층양치 못흘너라'의 '층양'은 測量(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없다'로 옮김.

698. '강구의 동요와 노인의 격양가'에서 '강구(康衢)'는 번화한 큰 거리, '격양가(擊壤歌)'는 태평성대에 백성이 부르던 노래로, 둘 다 태평성세를 상징한다. 그래서 요순(堯舜)시대에 비길 만하다고 한 것이다. 초벌의 '강물과 바다의 물결' 운운은 오역이다.

699. '헌(현)·창·열'은 길동(왕)의 세 아들 이름이며, '백시·됴시'는 백씨(白氏)·조씨(趙氏) 등 어머니의 성씨로 '○○ 소생'은 그 부인이 낳았다는 뜻이다.

700. '부풍모습(父風母習)'은 아버지의 풍채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다.

701. '긔남ᄌᆡ'는 기남자(奇男子), 곧 빼어난 남자라는 뜻이다. 초벌의 '남성 못지않았다'는 오역이다.

702. '봉군(封君)'은 왕족·공신을 군(君)으로 봉하는 것이다. '부마(駙馬)'는 임금의 사위로, 두 딸의 남편감을 간택했다는 뜻이며 초벌의 '차자의 부마' 운운은 오역이다.

703. '위의(威儀)'는 위엄 있는 거동·풍채를 뜻한다.

704. '젹숑ᄌᆞ의 ᄌᆞ최를 ᄎᆞᆺ고져'의 '젹숑ᄌᆞ'는 赤松子(적송자)로 전설 속 신선이다. '적통 후계자'가 아니라 '신선이 되어 속세를 떠나려는 마음'을 뜻하므로 '적송자처럼 신선의 자취를 좇고자'로 옮김.

705. '니원풍악'은 梨園風樂으로, 梨園(이원)은 궁중의 음악·가무를 맡던 기관이다. 단순히 '원풍악'이 아니라 '이원의 풍악(궁중 음악)'을 뜻함.

706. '안긔싱'은 安期生, '젹숑ᄌᆞ'는 赤松子로, 둘 다 도교 전설에 나오는 신선의 이름이다. 신선을 좇아 속세를 떠나고(죽고) 싶다는 뜻으로, 초벌의 '안락한 삶'·'어린 시절의 추억'은 오역이다.

707. '부운'은 浮雲(뜬구름), '텬지졍슈'는 天地定數(천지의 정해진 운수), '인녁'은 人力(사람의 힘)으로 복원해 옮겼다.

708. '귀쳔'은 貴賤(귀함과 천함)으로, 신분이나 처지에도 정해진 때가 있어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인생무상의 탄식이다.

709. '열락'은 悅樂(기뻐하고 즐김)으로 옮김.

710. '일위'는 一位(한 분, 한 사람)임.

711. '청여장'은 靑藜杖,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 '속발관'은 束髮冠, 머리를 묶어 올려 쓰는 관. '학창의'는 鶴氅衣, 소매가 넓고 가장자리에 검은 선을 두른 도사·은자의 겉옷.

712. '공순이'는 恭順히(공손하게)라는 부사이며, 초벌의 '공순이 일어나'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다.

713. '쳐쇼'는 處所(처소), 곧 '한곳·자리'를 뜻함.

714. 'ᄒᆞᆫ가지로 가미'는 '한가지로 감이', 곧 '함께 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초벌의 '가질 수 있다면'은 '가다(往)'를 '가지다(持)'로 잘못 옮긴 오역임.

715. '영뇩'은 榮祿(영록), 곧 영화로운 복록을 가리키는 한자어임.

716. '호련'은 忽然(홀연, 갑자기)으로, 초벌의 '호랑이 울음소리'는 오역임. '뇌졍벽역'은 雷霆霹靂(우레와 벼락).

717. '육한장'은 六環杖(육환장)으로 고리가 여섯 달린 지팡이임.

718. '간ᄃᆡ 업ᄂᆞᆫ지라'는 '간데없다'(흔적 없이 사라지다)로, 초벌의 '사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오역임.

719. '거즛 관곽'의 '거즛'은 '거짓'으로, 시신이 사라져 빈 관곽(棺槨)을 갖추었다는 뜻임. 초벌의 '거적과 관'은 오역임.

720. '쳔셰'는 千歲로,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환호('천세!')다. 초벌의 '천하를 불러 모았다'는 오역이며, 만조백관이 조회에서 천세를 부르는 장면이다.

721. 'ᄉᆞ문'은 赦文(사면의 글, 사령)으로, 즉위에 즈음해 죄인을 사면하는 교서다. 초벌의 '선비들'(士)은 오역이다.

722. '격양가(擊壤歌)'는 요임금 때 늙은 농부가 땅을 두드리며 태평성대를 노래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백성이 시절의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가리킨다.